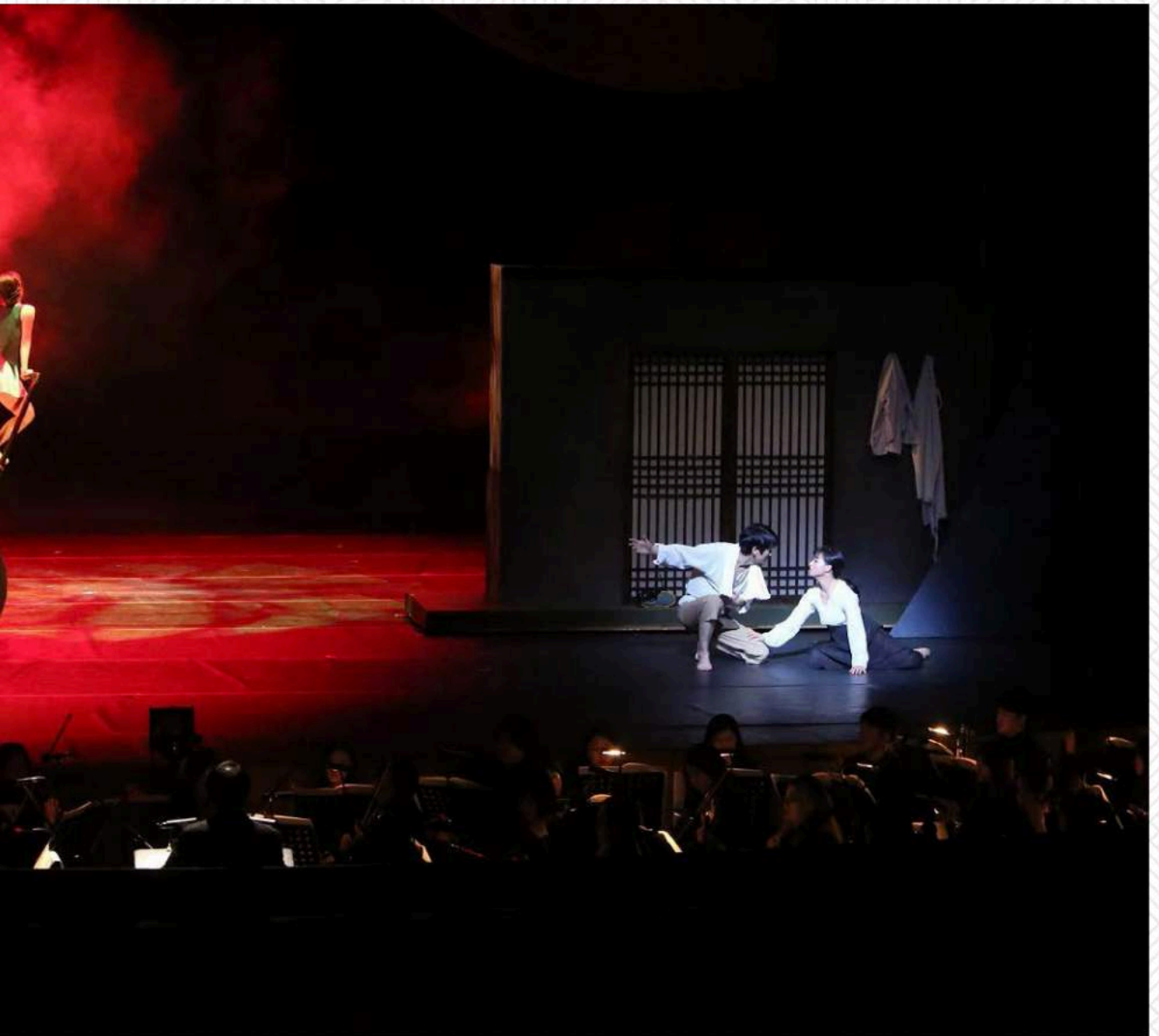


공감극장

Busan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Vol.26 Autumn 2017



김옥련

현 / 김옥련발레단 단장 및 예술감독
부산진구청 청소년예술학교 강사

학 력 / 경성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 력 / 경성대학교 겸임, 외래교수(1991~2013), 신라대학교(1996~1998),
부산대학교(2001~2002), 진주교육대학교(2008~2009) 외래교수
부산예고(2002~2003), 울산예고(2004~2008) 강사
한독 경영 정보 여자고등학교(1987~1988) 교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2006~2013) 강사

대표작 / <분홍신 그 男子>, <날개>, <거인의 정원>, <운수 좋은 날>,
<여우FOX>, <운현궁의 봄>, <순간>, <영혼의 동반자>외 다수

상 훈 / 부산KBS 무용공쿨 발레부문 금상(1984)
MBC 무용창작 경연대회 우수상(1992)
2010 PAF 춤예술 공헌상 수상(2010)
제35회 최우수예술가 심사위원선정 특별예술가상(2015)



Busan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Vol.26 Autumn 2017



운수 좋은 날

CONTENTS

여는글

06 '공감 그리고, 26호' 구분호

#1 부산문화재단에 바란다

12 부산문화재단의 역할과 과제 이재희

#2 말문을 열다

18 마음에 문을 두드리며 유상출

24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품고 있는 그림자들의 섬.
(그림에도 불구하고) 방호정

30 "서울과 부산의 문화 간격을 좁히고 싶어요" 동길산

36 기억도가 품은 역사를 오픈뮤지엄으로 연결하자 홍순연

40 내 마음속 작은 세상 꿈을 그리다 전용미

#3 문화 돋보기 I

46 가마골 소극장을 가다 정익진

50 가마골소극장 이야기 [좌담]

#4 문화 돋보기 II

60 문화가 꽃피는 부산의 창작공간들 송수경

#5 속살을 보다

72 건강증과 열쇠-조갑상, '병천읍지 편찬역사' 김달남

74 예술을 통해 시대의 변화를 이끈다

78 초량1925, 부산의 사리지는 것과 현재를 잇고 미래를 상상하다 창파

82 상주 단체의 현안과 해법의 작은 실마리 김남석

#6 손을 잡다

86 문화니움의 시작 조용한다 김석희

#7 재단은 지금

90 부산문화재단은 지금



Busan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동권 26호 정기간행물(부산남 비00007)

ISSN 2586-1077

등록일 2011. 6. 23 발행일 2017. 11. 14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84-1(감만동)

Tel.051-744-7707 www.bscf.or.kr

발행인 유종목

편집위원 구분호, 김희진, 동길산, 방호정, 이성훈, 정만정

편집기획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 디자인·제작 MANBO-DESIGN



부산문화재단 '공감 그리고, 26호'

부산문화재단에서 발행하고 있는 계간지 '공감 그리고'는 문화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정보 제공형 문화예술 잡지'입니다. '공감 그리고'에 실린 글과 사진은 부산문화재단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감 그리고'에 실린 글은 모두 개인 필자의 의견임을 밝혀드립니다.

『공감 그리고』 26호

글 | 구분호 · 편집위원, 티엘갤러리 관장

『
 세월이 바뀔 때마다 느끼지만, 이번 『공감 그리고』 26호를 준비하면서 또 느낀다.
 무더운 날씨와 씨름을 하면서 『공감 그리고』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는 편집위원과
 필진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감 그리고』를 펼친다.
 』

왕성하게 활동하는 문화예술계 인사들,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기획, 문화예술 관련 사건사고 등을 수록하기에 다양함, 활기찬, 분주함과 같은 단어들 이 떠오른다.

예술의 창작요인을 천재, 영감, 상상이라고 한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창작을 위한 공간과 관계가 있을까? 예술창작은 예술작품을 생산하는 어떤 작용이다. 이것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느냐에 따라 창작공간의 필요성과 의미는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예술가에게는 창작의 요인보다는 창작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이 더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예술가들은 머릿속으로 뮤지컬 무대를 만들기도, 연극 무대를 만들기도, 유화 캠퍼스도, 전시장도 만들며, 공연 순서와 진행방식에 따른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기도 한다. 공연에 관한 모든 프로세스를 상상으로 가능하다.

현실은 아니다.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있어야만 된다. 3차원의 공간이 필요하다. 4차원이 아닌 공간. 예술가에게 창작을 위한 공간이 필요한 이유는 실현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술은 시각적이든 물리적이든 드러냄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미술가들의 작업실, 연극인과 음악, 무용인을 위한 리허설 공간 등은 결과를 드러내는 과정의 공간이다. 이 과정은 상상의 한 부분을 보완하고 채워주는 현실적 공간이다.

창작을 위한 공간을 개인 또는 단체가 임대하여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가하면, 기업이나 국가기관이 제공해주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흔히 개인 또는 단체가 임대하여 활용하는 공간을 작업실이라 칭하며, 기업이나 국가기관이 제공해주는 공간을 레지던시(residency)라 많이 칭한다. 두 가지 모두 예술가의 입장에서 보면 작업을 하기 위한 창작공간이다. 이 공간들은 약간의 제약이 따른다. 개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임대비라는 부담, 기업이나 국가기관이 제공해주는 공간은 임대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데 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 제약과 주최 기관이 예술가에게 관광, 체험 활동, 작품 주제 등을 요구함에 따른 순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누구의 관습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개인의 창작에 몰두할 수

있으나 정보의 공유에서 미약한 것이 흠이다. 레지던시라는 말뜻처럼 예술가들에게 일정 기간이라는 제약은 따르나 있는 동안 거주·전시 공간, 작업실 등 창작 생활공간을 지원해 작품 활동을 돕는 사업이므로 예술가는 특정 공간에 거주하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다른 예술가나 예술계 인사와 교류하며 창작 활동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술가들이 창작공간을 위해 한 명 두 명이 임대비 저렴한 곳을 찾아 모여 집단으로 형성된 곳이 여럿 있다. 미국의 소호거리가 그렇게 형성되었고, 서울 홍대 앞이 그렇게 형성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곳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예술가들은 임대료가 저렴한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가진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사례들이 장소재생에서 좋은 예시가 되어 세계적으로 슬럼지역 재활성화를 위한 전위부대가 되어 예술가들이 침투한다. 침투된 예술가들은 장소를 재생하는데 실패한 적이 거의 없다. 이제는 국가시책으로 장소의 부분 또는 전체에 공간을 마련해준다. 국립현대미술관 창동 레지던시는 서울 도봉구에 불타버린 하나로 마트 건물을 매입하여 2002년에 창작 스튜디오로 문을 열면서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시켜 지역 홍보 효과를 얻고 있으며, 부산의 감천문화마을 또한 빈집을 리모델링해 입주 작가들이 작업을 하고 있으니 지역의 재생과 이에 따른 홍보효과를 누리고 있다.

예술가에게는 창작공간 마련의 기회, 주최 측은 장소 회생의 기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예술가에게 장소는 창작공간을 위한 목적으로 주최 측을 활용하고, 주최 측은 예술가를 장소재생을 위한 도구가 된다. 분명 시각의 차이는 있다.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면 서로가 Win-Win하며, 나쁘게 생각하면 이용의 대상이 된다. 예술가에게 작업실은 아이디어 충전소이기에 상생의 길로 갈 수 있다고 보이는 것 또한 여기에 있다. 예술가가 예술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창작공간. 이 창작공간을 얼마나 열심히, 잘 활용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가마골 소극장 2층 북카페 오아시스



초량동

부산문화재단의 역할과 과제

글 | 이재희 · 경성대학교 경제금융물류학부 교수

문화정책의 목표

20세기 후반 이후 각국 문화정책의 기초로서 문화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이념이 자리 잡았다. 문화민주화는 예술성이 확립된 고급예술을 더 많은 국민이 향유할 수 있게 하는데 목표를 둔다. 반면 문화민주주의는 문화 다양성 확대를 목표로 하며 고급예술과 아마추어 생활예술 등을 동등한 가치로 다룰 것을 요구한다. 문화민주화가 '모든 사람을 위한 문화'라면 문화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에 의한 문화'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문화정책 기조는 문화민주화로부터 문화민주주의로 크게 이동했다. 그러나 문화민주화보다 문화민주주의가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이론적 근거는 없으며, 어느 한 쪽의 가치만 강조하는 것은 편향된 성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현실 문화정책에서는 양자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문화민주화 맥락에서, 문화 수월성 증진을 위한 기초예술 지원이 필요하다.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예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화민주주의 맥락에서, 문화적 다양성 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아마추어 생활예술이나 혁신적 대안예술 지원이 중심이 된다. 이들과는 별도로, 최소수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문화 기본권 보장은 모든 문화정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다. 사회 전체적으로 문화 향유의 양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최저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가 증가하지 않으면 그 사회의 문화복지가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문화 수월성, 문화 다양성, 취약계층의 기본적 문화수요는 문화정책 목표를 구성하는 세 영역이다. 이들 영역은 서로 결합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느 한 영역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것보다 문화정책이 달성해야 할 복합적 목표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산문화재단의 역할에 관해 간략히 논의해 보기로 한다.

부산문화재단의 역할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역 문화정책은 지방정부와 지역문화재단이 주도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도 2008년까지는 부산시(문화관광국)가 지역 문화정책을 전담했으나 2009년 부산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역할을 분담하게 되었다. 그동안 부산문화재단이 수행한 역할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갖는 부분은 부산시 문화정책의 편향성을 시정하고 완화시킨 점이다.

2000년대 이후 부산시는 영상산업 육성에 주력했고 이것은 부산이 영화도시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의 한정된 문화정책자원을 영화 부문에 집중함으로써 다른 장르에는 훨씬 적은 자원이 배분되는 문제가 지속되었다. 2010-2016년간 부산시 문화예술 예산 중 영화에 배분된 비율은 매년 평균 36%(최소 27%, 최대 44%)에 달한다. 중소도시도 아니고 수백만 인구를 가진 대도시에서 특정 장르에 문화예술자원을 집중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고, 이러한 편중성은 서울 등 다른 대도시에서는 유례를 찾을 수 없다.

문화소비에서도 부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편중성이 두드러진다.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산 시민의 문화예술 관람률은 문학, 미술전시, 서양음악, 무용, 전통예술 등 거의 모든 장르에서 전국 평균을 하회한다. 그러나 영화 관람률만 예외적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며 최고 수준에 있다. 만일 부산 시민의 높은 영화 관람률이 그동안 추진한 부산시 문화정책의 성과라 한다면, 다른 장르들에서 낮은 관람률 또한 그 정책의 그림자라고 해야 할 것이다.



지역 문화정책에서 특정 부문에 대한 집중을 완화시키고 균형 있는 문화발전을 도모하는 일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문화재단이 추구해온 정책 방향은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 부산문화재단은 영화 부문에 밀려난 기초예술 부문에 정책지원을 집중함으로써 부산시 문화정책의 폐해를 교정하는 데 기여했다. 지역문화 예술특성화 지원 사업 등 기초예술 창작 지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과 기초예술 및 국악 예술강사 파견사업 등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누리카드사업 등 취약계층의 문화복지 지원 등이 그와 관련된 주요 사업들이다.

부산문화재단이 부산 고유의 특성화된 사업을 진행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조선통신사 축제를 개최하고 역사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일 공동으로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또따또가, 흥티아트센터, 감만창의문화촌 등 창작공간 운영에서 성과를 거두어 왔고, 최근에는 F1963이나 사상인디스테이션 등 문화공간 운영도 맡고 있다.

부산문화재단의 과제

부산문화재단이 짧은 기간에 성과를 거두며 성장하고 있으나 문화정책의 세 목표와 관련해 보자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지니고 있다.

첫째, 문화의 수월성과 관련하여, 창작지원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행 지원방식은 지역 예술가에게 생계 보조의 의미가 크고 탁월한 예술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원방식이 필요하다. 둘째, 문화다양성과 관련하여, 생활예술 활성화나 시민참여형 축제 개최 등이 요구되지만 이 부분은 지원이 없거나 매우 불충분한 실정이다. 셋째, 취약계층 문화복지와 관련하여, 문화누리카드가 여행, 체육 등 다른 영역에 주로 활용되고 있어 협의의 문화예술의 향유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별도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부산문화재단의 주요 사업이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이고 자체사업이 아니라는 데 있다. 2016년 부산문화재단의 예산 286억 원 가운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앙정부, 부산시 등으로부터 온 위탁사업예산이 95%인 271억 원이며 자체예산은 5%인 15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다른 지역문화재단과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 수도권 지역문화재단의 경우 자체예산 비율은 서울 28%, 경기 21%로 훨씬 높고, 전국 평균도 14%로 부산의 세 배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문화재단에 비해 부산문화재단의 사업들은 통합성이 결여되어 있고 상호 독립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 각 사업들을 상호 연계시켜 사업성과를 높일 여지



가 다른 지역보다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백화점식 사업 전개에서 벗어나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상의 제약부터 해소해야 한다. 일차적으로는 2018년까지 500억 원으로 되어 있는 기금조성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재원조성을 위한 자체 활동도 보강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부산문화재단 내부적으로 사업추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그 기초 작업으로서 재단의 사명부터 정립할 필요가 있다. 부산문화재단이 어떠한 사명을 추구하는 조직인지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을 비롯한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알 수 없다면, 일관된 정책 목표를 세우기도 어렵고 그 목표를 장기적으로 추진하기도 어렵다. 현재 부산문화재단의 사업영역은 다른 지역문화재단과 비교해 협소한 편이다. 2016년 기준으로 예술지원, 문화예술교육, 문화복지의 3대 사업영역 집중도가 83%(사업예산 기준)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국 광역문화재단 평균 69%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며,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영역들이 취약한 상황이다. 생활예술의 비중은 2%로 매우 낮으며, 그 밖에 문화정책 개발, 지역축제 개최, 재원조달과 기금조성 등의 기능은 없거나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부산문화재단이 장기적인 전망 하에 부산의 문화정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측면을 보완해야 한다. 새 정부 들어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 확보가 주요 화두로 제기되어 있다. 그런데 자율성은 지역문화재단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비록 외부적 규제가 수반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재단의 사명과 목표에 기여하도록 이를 자체사업과 연계시켜 추진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내부적 역량이 요망된다.

끝으로 지역 내의 다른 문화정책 주체들과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서울문화재단의 '서울거리예술축제'에서 보듯이 지역축제는 지역문화재단의 성과를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중심축이다. 부산에서 지역축제는 부산문화재단과 독립적으로 부산문화관광축제 조직위원회가 관할한다.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관광축제 조직위원회, 부산시(문화관광국) 등 정책주체들 간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지역 문화정책을 전반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 보여주기 식의 기존 지역축제에 대한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부산문화재단은 축제 콘텐츠 제공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참여형 축제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지역문화정책 주체들의 기능과 업무영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수 있다. 특히 부산시 문화정책 가운데 문화예술 인프라 건설 사업을 제외한 모든 문화예술 지원 사업은 부산문화재단으로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다.

말 문 - 열다

18

마음에 문을 두드리며 유상훈

24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품고 있는 그림자들의 섬. <그림에도 불구하고> 방호정

30

서울과 부산의 문화 간격을 좁히고 싶어요 동길산

36

가덕도가 품은 역사를 오픈뮤지엄으로 연결하자 흥순연

40

내 마음속 작은 세상 꿈을 그리다 전용미

24



30



18



18



40



마음에 문을 두드리며

글 | 유상훈 · 장고개 연극작업실 대표, 연출가, 극작가, 배우

"김옥련 발레단에서 나왔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안 합니다."

무엇이 필요 없다는 건지 무엇을 안 한다는 건지 우선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 영락없는 잠상인 취급이다. 이 정도에서 물러설 김옥련 단장이 아니다.

"아, 저는 김옥련 발레단 단장 김옥련이라고 합니다."
"글쎄, 올해 계획은 이미 끝났어요."
"올해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잠깐 들어가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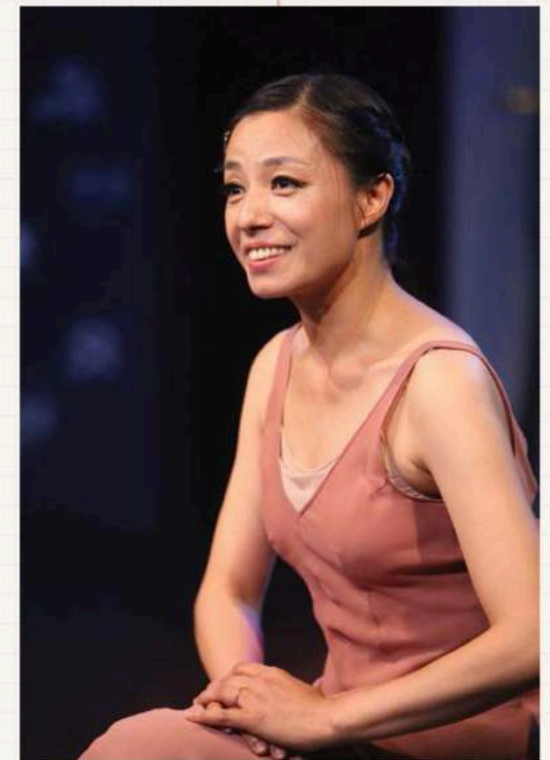
그렇게 해서 유치원 문을 열어주는 곳은 열에 한두 곳. 관련 파일만 전해주고 돌아서기가 부지기수란다. 어렵게 문을 뚫고 들어가면 분명 유치원 원장님이 자명할진대 '원장님 출장 중인데요' 하며 자신을 부정하는 멘트 앞에 한없는 비애를 느끼기도 한단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생각해 본다. '이 정도가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사회를 위해 해온 일이다. 우리의 잘못이다.' 그리고 그녀는 다음 곳을 찾아 다시 닫힌 문을 두드린다. 그렇게 올해도 '숲속발레' 공연 홍보를 위해 새롭게 찾아 나선 유치원만 해도 50여 군데. 그중 3군데에서 관심을 보이고 연락이 왔다. 물론 그녀가 가고 난 뒤 홍보물을 읽고 관련매체 인터넷을 검색한 후 그간의 자료를 충분히 보고서야 연락을 한 것이다. 여기에서 홍보가 끝이 나질 않는단다. 단체를 움직일 수 없다면 그 단체의 개개인들에게 홍보물을 나누어줄 수 있는 허락을 받기 위해 2차 접선을 시작한다.

16년째 이 일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하고 있단다. 올해도 부산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거인의 정원' 숲속 발레 공연을 무사히 마쳤다. 공연장을 찾은 단체들의 60여대 대형차량들이 질서 정연하게 이 공연을 위해 왔다가들 갔다.

김옥련 발레단을 말할 때 '숲속발레'를 떼어놓고 말할 수 없다. '숲속발레'의 근간을 물었다.

"처음 어린 딸아이 손을 잡고 어린이 날 행사를 구경 갔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공연행사도 허접했고 넓은 관객석에 관객도 얼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아교육의 수업도 들어가며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쳤어요. 그리고 난 뒤 아이들을 모아놓고 준비한 일련의 레퍼토리를 보여줬어요. 실험을 한거죠. 만약 반응이 없다면 접어버리자 하는 심정으로 그런데 전원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

유아교육의 수업도 들어가며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쳤어요. 그리고 난 뒤 아이들을 모아놓고 준비한 일련의 레퍼토리를 보여줬어요. 실험을 한거죠. 만약 반응이 없다면 접어버리자 하는 심정으로 그런데 전원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 다짐한 게 있어요. 시작한 이상 10년은 꼭 하자 그렇지 않으면 시작도 말자.



서 자신감을 갖고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 다짐한 게 있어요. '시작한 이상 10년은 꼭 하자 그렇지 않으면 시작도 말자.' 그녀는 이렇게 가족 무용극 시리즈 '숲속발레'를 16년째 이어오고 있다.

그녀가 이끄는 김옥련 발레단은 일반 공연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이 단체의 발레공연은 약간 특이하다. 필자가 그녀를 처음 만난 것은 연출가와 무용가로 작품섭외를 위해 만났었다. 지금 보다 10년은 젊었을 때였고 우리는 호쾌히 낯술을 했었다.

난 발레리나에게 가수 김추자 씨가 불렀던 '님은 먼 곳에'란 노래에 맞춰 '승무'를 추어주길 요구했고 그녀는 한 술 더 떠서 마침 검정색 일색의 승무복을 구할 수 있는데 그걸 입어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했다. 그렇게 인연이 되어 만난 이후로 발레극 이상의 '날개'로부터 시작해서 발레단이 해운대 문화회관 상주단체를 지내는 동안 '운현궁의 봄', '해운대 연가', '운수 좋은날', '거인의 정원', '여우', '해운' 등 여러 레퍼토리를 함께 개발하여 남녀노소 많은 관객들과 출연진들이 뜨겁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왔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발레 공연의 방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

었다. 이에 대해 그녀에게 물었다. "정통 발레를 사랑하는 이들의 우려이겠지요. 크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1900년도 초 이미 '디아벨로프'를 비롯해 많은 발레의 실험적 장르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눈을 돌려 세계로 나가보면 그들의 실험적 발레의 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의 모토이지만 관객과 좀 더 가까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공자끼리의 공연답습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개척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발레단의 공연에는 여러 장르의 무대공연자들이 등장한다. 발레리나, 발레리노는 물론 현대 무용가, 한국 무용가, 성악가, 배우, 악기 연주자, 국악 소리꾼 등등. 부산의 발레전공자도 귀하지만 그녀가 작업을 위해 섭외한 전공자들 중 태반은 적응하지 못하고 떠났었다. 그만큼 새로운 시도로 채워지는 발레단의 색깔로 22년째 이끌어 오고 있다. 그녀는 부산에서 태어나 발레 전공자로서 대학을 졸업한 후 무용교사로 선생님이 되었다. 하나 이를 건너차고 대학원을 진학한다.



"만족스럽고 안정된 미래, 인간적 성실함의 실천과 보장된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허기가 나를 찾아왔어요. 배움에 대한 열망,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춤에 대한 그리움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왔지요." 그녀는 사직서를 내고 이화여자 대학 무용학과 대학원에 들어간다. 석사학위를 마치고 러시아 유학의 기회를 잡아 준비 중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된다. "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 주신 분이 있었어요. 나의 든든한 지주이셨고 한 번도 큰 소리 내지 않고 지지해 주신 분이었지요."

그녀는 유학을 포기하고 이후 귀향하여 학교와 사회단체에서 발레수업을 하는 교육자로서, 그리고 지역과 학맥의 울타리를 허물고 발레를 사랑하고 무대를 꿈꾸는 이들을 수용하는 동인단체를 만들어 새로운 안무가 발굴과 부산발레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선봉장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늘 목마른 무용가로서, 그리고 안무가로서 정말 쉽 없이 지금까지 이어온 길이라 했다. 그새 그녀가 수상한 상훈들은 그녀의 여정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부산 KBS 발레부문 금상', 'MBC 무용창작 우수상', '2010 PAF 춤 예술 공헌상', '제35회 최우수예술가 심사위원선정 특별예술가상' 등.

어찌 그 여정에 어려움이 없었겠는가. "가장 큰 도움은 아버지의 정신적 유산이지요. 지금의 나를 있게 하고 이끌어 주었어요. 결정적 순간에 아버지의 말씀들이 떠오르죠. '너의 아픔을 예술에 쏟아 부어라', '내 삶의 이유인 일에 몰두하라',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일을 하라',



"한계에 부딪히는 의식적인 노력, 올바른 노력을 하라" 힘이 되시는 분이 한분 더 있으시단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선생님 '우위주' 선생님이시다. "정말 이제는 도저히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느낄 때 불쑥 나타나 '멈추면 안 된다' 하시며 도움을 주시죠. 그럼 그 손을 잡고 일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지요. 올해도 숲속발레 공연 극장 대관료를 대신 내어 주셨어요." 또한 그녀가 누구보다 고마워하는 이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 그 많은 공연들에 참여하여 하얗게 불태워준 출연진들과 스태프들이라 말한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부산문화예술의 무대를 지키고 이어온 공로자들이지가…….

그녀의 근황은 곧 그녀의 활동영역이리라. 김옥련 발레단은 얼마 전 9월 1일~3일 '수원 발레 축제'에 참가하고 왔다. "이 축제는 6개의 민간단체(서울 발레 시어터, 유니버설 발레단, 이원국 발레단, 와이즈 발레단, SEO 발레단, 김옥련 발레단)가 구축한 '발레STP' 협동조합이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발레계의 발전과 발레 대중화를 위해 상호간 협력하고 다양한 발레공연, 교육 프로그램, 행사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자 서울 뿐 아니라 지방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들도 함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축제입니다." 9월 13일에서 17일까지 부산 '한결 아트 홀'에서 문학과 접목을 시도하는 '김옥련 발레단'의 일련의 작업 연장선상에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죄와 벌'이 창작 무용극으로 재탄생해 공연됐다. "연극 연출가 정경환이 연출하고 김옥련 안무로 이루어지는 이 작품은 인간의 본능과 충돌하는 이성, 어리석음과 회개, 거짓과 진실을 다루며 스스로를 파괴하면서 체험하는 자신의 삶을 그 시대적 배경과 아울러 춤과 연기로 풀어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또한 그녀가 속한 부산의 춤 연구소

만족스럽고 안정된 미래, 인간적 성실함의 실천과 보장된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허기가 나를 찾아왔어요. 배움에 대한 열망,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춤에 대한 그리움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왔지요

에서 올해 12월 15일 심포지엄을 가지고 12월 16일 공연을 올린다.

"부산의 4~50대 무용가들이 모였어요. 오늘날 춤의 방향성을 함께 찾아가자는 취지지요. 발레에 저를 비롯해 한국무용에 이현미, 신은주, 이정화, 배정현, 현대무용에 함수경 선생들이 모였지요. 부산의 춤 동료들을 만나보면 개개인으 학교와 학원 등지에서 가르치며 개인작업도 많이 하고 정말 열심히 살며 잘해나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무용계 미래를 걱정하고 공연 전반의 흐름 혹은 무용의 사회적 위상을 개선하기 위한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보다시피 그녀의 일상과 1년은 빠듯하도록 쉼 없이 달리고 있다. 대학 재학 시절부터 중환자실에서 8~9년 동안 어머니의 병간호를 한 이후로 습관이 되어 하루 4~5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는단다. 그런 그녀에게 휴식이 필요할 것 같아 100일간의 휴가가 주어진다면 과연 무얼 할 건지 물었다.

"다른 유수의 발레 컴퍼니를 찾아가 머물며 교류를 하고 싶어요."

일과 일상이 구분이 없다.

그녀에게 다시 모색해야 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물어 보았다. "고정 관객을 찾아 나서는 일에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해요.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법도 모색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관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레퍼토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거리로 나서거나 찾아가는 공연을 한다고 해서 관객을 키울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부실한 공연 문화들은 오히

려 치명적인 역효과를 내기도 하지요. 다시는 그 장르의 공연을 보려하지도 않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녀의 전화기 속에 주소록 개수를 물어 보았다. 그럴 것 같아서였는데 2910개였다. 보통사람들의 10배다. 그녀도 한때는 수줍고 고야한 발레리나였단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가 나서지 않을 수 없었고 이루어 내야만 했었던단다. 그렇게 20여년의 노하우가 지금의 저력으로 남아있고 원동력이 된다고 말한다.

"처음 가르치던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 있다면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는 또 새로운 마음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육과 공연, 그리고 제작 기획의 전 방위를 뛰어다니는 그녀에게 오늘날 소통을 힘들어 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도움말이 있을 것 같았다.

"뜨거워야 변하지요." 짧고 간명했지만 그녀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그 대답으로서 양쪽을 다 채워주는 답변이었다.

그녀는 화장을 하지 않는다. "땀을 많이 흘려 금방 지워져요. 소용이 없어요" 늘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녀이기에 인생에 여러 터닝 포인트가 있었으리라……. 앞으로 몇 번의 터닝 포인트가 더 있으리라 여기는지를 물었다.

"이제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가야지요." 작업으로 배운 게 있다면

"화합입니다." 언제까지 춤을 추실 계획이신가요? (그녀는 2008년 이후로 과도한 연습과 공연, 누적된 피로로 두 무릎의 연골이 다 파열된 상태)

"생각해 본적 없어요. 아직은 마음이 있으니 계속 춤을 추는 거지요."

생각해 본적 없어요. 아직은 마음이 있으니 계속 춤을 추는 거지요



인간은 5000만년에 걸쳐 13번의 환골탈태를 거듭하여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진화 생물학자들 중에는 추론한다. '처음 물에서 육지로 올라와 척추를 갖추고 네 발로 기어 다니다 직립 보행으로 이어지는…….' 발레 하는 이들은 마치 14번째 환골탈태를 하려는 듯 몸을 만들어 도약을 시도한다. 그들은 준비운동(소위 '바'에서 하는)만으로도 2시간 정도를 소요하며 땀을 흠뻑 흘리는 모습을 지켜보게 된다. 인간의 자존심을 지키며 미의 극치를 지향하는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까치발을 하고 가슴을 내밀어 도도한 턱을 들어올린다. 그리고 세상에 손을 내어민다.

"함께 하실까요" 김옥련 발레단의 공연이 다가오면 다른 여러 극장 입구에서 화장기 없는 얼굴로 공연이 끝나고 몰려나오는 관객들에게 공연 홍보 전단지들을 나누어주고 있는 그녀의 손길을 만나게 된다. 단 한 사람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려는 발레리나의 손길이다.

뜨거워야

변하지요

부산스런 인터뷰

글 | 방호정 · street writer, 영화배우, 작가, 다큐멘터리감독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품고 있는

그림자들의 섬

<그림에도 불구하고>

- 김영조 감독 인터뷰



지난 8월 24일 저녁, 부산 국도예술관에서 영화 <그림에도 불구하고>의 첫 상영으로 관객들과 만난 김영조 감독은 천만 관객 시대에 1만 관객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아쉬찬 각오를 밝혔다. 상영회 직전 영화 <택시운전사>가 천만까지 60만 남았다는 뉴스를 보고 먹먹함을 느꼈다고 했다. 60만이 그렇게 가벼운 숫자인가. 한국은 수치가 중요한 것 같으며 수치가 올라갈수록, 수치심을 느낀다는, 냉정하게는 아재개고, 포장하자면 라임을 살린 편치라인으로 관객들에게 농담을 던졌다.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농담이었다. 9월 7일 오후, 한창 여러 지역의 관객들을 만나느라 정신없는 김영조 감독을 부산영상벤처센터 로비에서 만났다.

감독님이 생소한 분들을 위해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부산에서 영화공부를 했어요. 부산에서 다큐멘터리 영화작업을 죽 해왔어요. 이번에 만든 <그림에도 불구하고>가 장편 다큐멘터리로는 다섯 번째 작품입니다. 이전 작품들은 배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영화제에서만 상영을 하고 생명을 다했어요. 사실 배급을 하고 싶었는데 잘 안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배급을 했죠.



어차피 다큐멘터리라는 것이 시의성이 있으니까 시기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굳이 서울 쪽에 목 매달 필요가 있나? 부산에도 인력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인력들을 좀 찾았어요. 소개 소개를 통해서 만났던 분이 지금 씨네소파 팀 리더를 하고 있는 성송이 씨를 만났구요. 협동조합이라서 조합을 설립할 때 다섯 명의 조합원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합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감독님께서도 배급한 작품이 처음이지만 이번 작품을 배급한 씨네소파라는 영화배급사 역시 감독님 영화를 첫 작품으로 배급을 시작했거든요.

제 영화가 씨네소파의 창립작품이죠. 제가 배급을 준비하면서 서울에 있는 배급사들을 좀 만났어요. 근데, 지역영화라는 이유도 있지만 흥행이 되지 않을 거란 이유로 배급을 꺼리더라고요. 어차피 다큐멘터리라는 것이 시의성이 있으니까 시기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굳이 서울 쪽에 목 매달 필요가 있나? 부산에도 인력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인력들을 좀 찾았어요. 소개 소개를 통해서 만났던 분이 지금 씨네소파 팀 리더를 하고 있는 성송이 씨를 만났구요. 협동조합이라서 조합을 설립할 때 다섯 명의 조합원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합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럼 씨네소파가 부산 지역의 첫 번째 배급사인가요? 이전에도 부산에서 배급을 시도한 적은 있어요. 영화를 만든 감독이 나서서 직접 배급을 시도한 경우도 있죠. 하지만 본격적으로 배급사란 타이틀을 걸고 공식적으로 활동한 단체는 부산에서 처음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배급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부심이지, 부산에 배급사가 전무했잖아요. 부산에서 쪽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부산에서 회사를 만들고 부산 작품을 가지고 첫 배급을 한 사례는 처음이죠. 거기에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요 왜 배급사가 필요했고 그런 점들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면, 부산시민들이 힘을 모아 부산에서 활동하는 청년들, 창작하시는 분들에게 힘을 실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아요.

첫 상영회를 국도예술관에서 하셨죠?

전국개봉을 앞둔 전 주에 부산에서 첫 상영회를 처음으로 했죠. 생일잔치를 가족이랑 먼저 하는 거죠. 지금은 전국 개봉 중이구요 지금은 부산에서도 개봉관 두 군데가 내렸죠. 예상은 했지만.

1만 관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목표에 좀 가까워졌나요?

아직 멀니다. 아직 천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팔백 명이 좀 넘었는데. 사실 목표라는 게 실현 가능한 목표보다는 불가능해 보이는 희망사항을 목표로 둔 거예요. 냉정하게 평가해보자면은 힘들 것 같고, 그래도 그렇게 목표를 정한 건 또 다른 누군가가 그런 목표에 도전 할 수도 있잖아요. 선배가 못했으니 후배가 바톤을 이어서 해보자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전국 상영을 하신 이후에 감독님은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단은 부산에 상영했던 상영관을 돌았구요. 저도 제 영화를 극장에서 한 8번 정도를 봤어요. 그래서 대사를 외워요. 이제는 서울에 있는 극장 몇 군데, 안양에서도 GV가 잡힌 상영회에서 관객들을 만나고 했죠.

부산의 영도라는 지역에 관한 영화인데 부산에서 상영할 때랑 다른 지역에서 상영할 때랑 관객분위기나 느낌이 좀 다른가요?

조금씩 달라요. 같이 웃고, 안타까워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이런 공통점은 있는데 같이 즐겁게 웃고 우는 포인트 지점이 좀 달라요. 그게 지역과 정서의 차이인 것 같은데. 관객 분들은 기존에 알고 있는 다큐멘터리는 좀 다르다, 새롭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사투리에 대해서 부산에선 당연히 알지만 다른 지역에선 재밌어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림에도 불구하고>란 영화는 어떻게 처음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우연한 기회에 이 영화에 출연하는 용접공 권민기 씨를 만나서 영도 지역에 대해 소개를 받다보니까 제가 부산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영도라는 공간이 낯설었고 호기심이 생겼고 그 공간에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있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재미있었어요. 개발이란 이야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뻔한 이야기잖아요. 개발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떠나야하고 그림 이 곳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까하는 호기심이 있었어요.

저도 영화를 참 재밌게 봤는데, 궁금했던 점은 개인적으로 어르신들을 대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편이라,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로 안방까지 촬영하셨는데 소통하기 어려움은 없었나요?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사실 그 분들에게 저는 낯선 이방인이잖아요. 사실 조금 전략적으로 많이 지나다니며 인사하며 낯을 익혔죠. 점바치 할머니께 찾아가 점도 여러 번 보고 그러다보니 나중엔 같이 밥 먹자고도 하시고 촬영기간도 꽤 오래되다 보니 친해지고 편안해졌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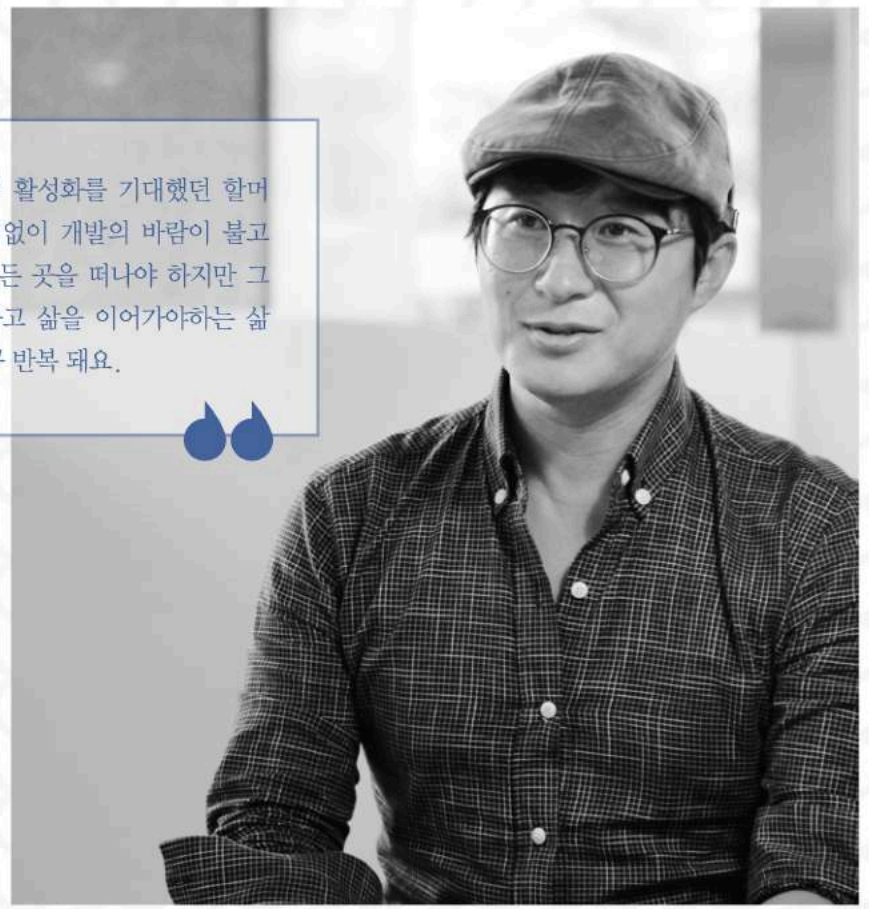
그 외 촬영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요?

아무래도 촬영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제작비가 많이 부족하긴 했죠. 같이 촬영하는 스태프들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할 수 없어서 사전작업을 거의 저 혼자 했죠. 촬영도 대부분 제가 많이 했고, 본격적으로 사운드라거나 다른 카메라가 필요할 땐 팀을 꾸렸고 제작비를 지원 받으려고 했는데 많이 못 받았어요. 저는 재밌었지만 스태프한테 미안한 게 많죠. 수중촬영도 제가 직접 해야 했고, 식사 같은 경우에도 나중엔 많은 분들에 알게 되어서 많이 대접을 받았죠.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특별하게 힘들었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영화에 보면 말을 잘 못하시는 해녀분이 계시잖아요. 자막이 없으면 못 알아듣는 상황이었는데 감독님은 어떻게 알아들으셨을까 궁금했어요.

저도 처음엔 못 알아들었어요. 인터뷰를 할 땐 그 해녀 분이랑 친한 분이 어느 정도 알아들으셨어요. 그분이랑 촬영분을 같이 보면서 스크랩을 했죠. 반복해서 보다보니 좀 들리더라고요. 어쩌면 그 모든 내용이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대화하면 알아들어요.

점바치 거리의 활성화를 기대했던 할머니들에게 여지없이 개발의 바람이 불고 있고, 결국 정든 곳을 떠나야 하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삶을 이어가야하는 삶의 굴곡이 자꾸 반복 돼요.



<그림에도 불구하고>란 제목만 들었을 땐, 사실 어떤 영화인지 감을 잡기 모호한 느낌이었어요. 어떤 의도가 있었나요?

처음엔 영화제목이 <영도> 였어요. 심플하잖아요. 부제가 그림자들의 섬이었어요.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미 '영도'라는 극영화가 나오고 좀 있다 '그림자들의 섬'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 보니 당시 대화 중에 '그림에도 불구하고'란 얘기가 자꾸 입에 붙더라고요. 영화의 이야기 또한 그렇잖아요. 점바치 거리의 활성화를 기대했던 할머니들에게 여지없이 개발의 바람이 불고 있고, 결국 정든 곳을 떠나야 하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삶을 이어가야하는 삶의 굴곡이 자꾸 반복 돼요. 스태프들의 반대도 있었어요. 좀 더 짧고 선명한 제목이 좋겠다고. 저는 모호한 느낌이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제목 좋다는 얘기 많이 하던데요? 영화를 보고 나니 딱 내용에 맞는 제목이라고..

영화 속에서 아주 잠깐 등장하지만 서병수 부산 시장의 모습도 참 인상적이더군요. 극영화로 치면 썬스틸러라고 할 만큼..

사실 영화에 나온 장면 이후 이어지는 매우 인상적인 해프닝을 촬영했지만, 고심 끝에 뺐어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전략적으로 이슈화 되어서 제 2의 다이빙 벨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죠. 혹시 그 분께서 시비라도 걸어주면 더 이슈가 될 테니까. 법적으로도 알아보니까 공인이기 때문에 사실 해 볼만 했어요. 그래도 이 영화가 정치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사회의 현상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좀 진정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빼고 점바치 할머니랑 만나는 장면만 보여줬어요. 그 장면 역시 의도치는 않았는데 할머니를 따라가다 보니 서병수 시장을 향해 가시더라고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찾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오아시스를 발견했다고 믿었지만 결국 신기루였죠.

영화에 들어가지 못한 에피소드들 중에서도 날리기 아까운 장면들이 많았다면서요?
서병수 시장 에피소드도 그렇고 이후에 할머니들을 다시 찾아가서도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영화 엔딩을 생각했을 때 그래도 관객들이 여운을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재밌는 부분들을 많이 빼버렸죠.

그림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참 재밌었어요, 저도 부산에 살긴 하지만 영도라는 공간은 어쩐지 좀 낯선 느낌이 있어요. 특히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에서 특히 영도를 많이 다루잖아요, 감독님에게 영도는 어떤 공간이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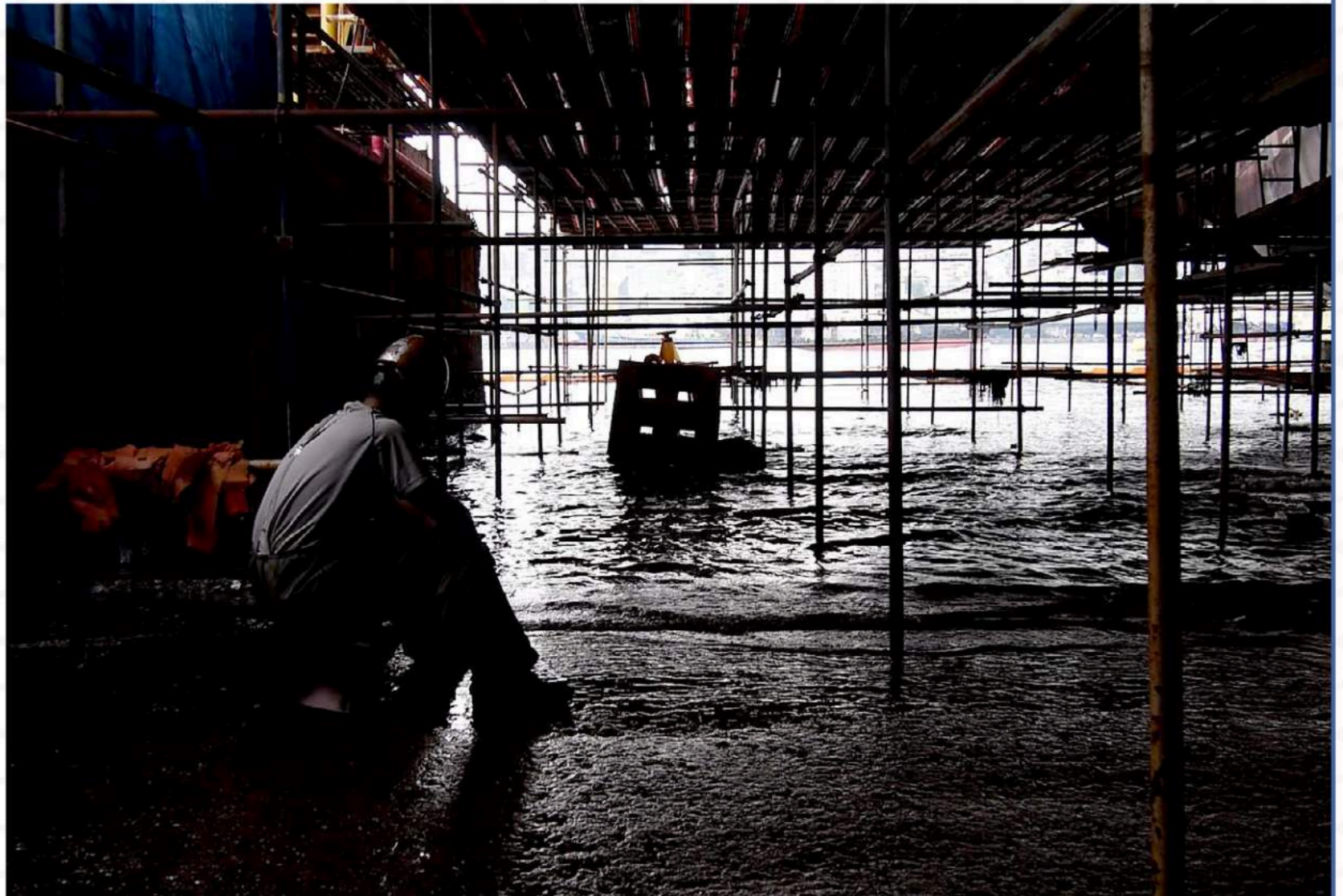
독특한 공간이죠. 바다가 있고, 산도 있고 요즘엔 흔히 볼 수 없는 오래된 형태의 집들이 모여 있고, 6.25 동란 이후 많은 피난민들이 정착을 하며 형성한 공간들, 헤어진 가족들을 찾고 그리워하며 무속인들의 거리가 형성되었고 그런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과거의 역사를 담고 있기도 하고, 조선사업이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을 때 조선사업의 시작이 되었던 곳이었죠, 현재는 개발의 바람으로 조선소는 없어지고 있고, 점바치 거리, 해녀촌 또한 없어지고 있고 그래서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관객들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품고 있는 공간이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수많은 장르 중에 다큐멘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저도 처음엔 극영화로 시작을 했어요. 학교에선 단편을 찍었고, 졸업 후엔 전수일 감독님 작품에 스태프로 활동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다큐멘터리 한 편을 봤어요. 제가 알고 있는 다큐는 동물의 왕국, 인간극장 뭐 그 정도였는데 아르타바즈드 펠레시안 감독의 끝, 인생 등의 작품을 봤는데 대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영상 자체가 너무 시적이었어요. 저런 다큐가 있구나.. 하는 충격을 받고 관심이 갔죠. 당시 우리나라 90년대 후반만 해도 다양한 다큐멘터리는 없었어요. 사적 다큐멘터리도 별로 없었고 사회성이 짙거나 정치 다큐멘터리 이런 쪽으로 많이 있었는데 마침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정말 다양한 다큐멘터리를 접했고 만들어보고 싶었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다른데 외국에서는 극영화를 하는 사람들도 처음엔 다큐멘터리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작업 자체가 관찰이고 발견이고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야기의 진솔함이 드러나는 만큼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다보니까 끊기 힘든 매력에 빠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다큐멘터리 감독 김영조가 되어 있더라구요. 나중에 극영화를 하게 되더라도 다큐멘터리 작업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후에 구상하고 계신 작품은 있나요?

지금 지뢰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고 있는 중이구요. 혹시 부산에 지뢰가 있다는 얘길 아시나요? 영도에도 있구요. 울산, 나주, 태안, 포항 전국적으로 지뢰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죠. 지뢰피해자가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르죠. 우리가 모르는 얘기지만 알아야 하고 지뢰는 제거 되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뢰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사람과 지뢰피해자들의 이야기죠.



“서울과 부산의 문화 간격을 좁히고 싶어요.”

글 | 동길산 · 시인, 본지 편집위원
 날짜 | 2017년 9월 8일 오후 3시
 장소 | 해운대구 중동 '소리 숲' 사무실



말문을 열다

김지윤은 한국 피리박사 1호다. 애칭이 아니고 실제 그렇다. 부산예고를 나와 서울대 국악과에 입학했다. 모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2004년 서울대에 기악전공 박사과정이 생기자 2005년부터 이듬해 2011년 학위를 땀다. 그러면서 피리 전공으로는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 피리박사 1호가 되었다.

김지윤은 활동반경을 고향 부산으로 넓히는 중이다. 2015년부터 매년 부산공연을 이어왔다. 지난 8월에는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에서 다섯 번째 피리연주회를 가졌다. 그렇지만 무게 중심은 아무래도 서울과 외국이었다. 나이 사십이 넘으면서 소리가 깊어지듯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어졌다. 그런 마음으로 올 여름 해운대구 중동에 작업실을 내었다. 중동 작업실에서 피리박사 1호 김지윤을 만났다.

작업실은 문화예술단체 '소리 숲' 사무실을 겸한다. 소리 숲은 피리를 널리 알릴 목적으로 서울에서 만들었다. 피리 학습의 기초인 교본이 태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2013년 도서출판 소리 숲을 차렸고 이듬해 피리 공연 위주 문화예술기획사 소리 숲을 열었다. 2014년 공연단체 소리 숲을 결성하고 2015년 소리 숲 창단공연을 했다. 중동 작업실이 소리 숲 사무실을 겸하면서 비야흐로 소리 숲 부산 시대가 열린 셈이다.

예술가 인터뷰
피리박사 1호 김지윤

“서울과 부산의 문화 간격을 좁히고 싶어요.”

◎동길산 **부산예고를 나왔다고 들었다. 언제부터 피리를 불었나?**

◎김지윤 부산예고에 5회로 입학했지요. 입학할 때는 피아노 전공이었어요. 네 살 때부터 피아노를 했으니 친구들은 제보다 피아니스트 될 걸로 알고 있었지요. 음악과 동기생 200여명 가운데 국악 전공은 10명 남짓했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국악은 비인기 장르였죠. 하루는 우연히 피리 소리를 듣게 됐는데 어떤 간절함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버지께 간청했지요. 피아노 대신 피리를 하고 싶다고. 1학년 2학기부터 피리를 불었어요. 처음에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아 애 먹었지만 부끄러워 않았어요. 오히려 즐거웠어요.

◎동길산 **어떻게 해서 피리박사 1호가 되었나?**

◎김지윤 대학은 서울대 국악과로 갔지요. 93학번입니다. 거기서 석사와 박사를 했습니다. 서울대에 국악 기악전공 박사과정이 생긴 건 2004년이었어요. 이전까지는 실기가 없었지요. 이론뿐이었어요. 2005년 박사 과정에 입학해 2011년 학위를 따면서 한국 피리박사 1호가 되었어요.

◎동길산 **피리의 매력은 뭔가?**

◎김지윤 피리는 우리 정서에 딱 맞는 악기입니다. 슬플 때 피리를 들으면 더 슬퍼지고 기쁠 때 들으면 더 기뻐집니다. 희로애락 모든 감정을 소화해 내는 악기가 피리인 거죠. 오랜 세월 우리 민족과 함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오랜 세월 함께 하면서 한민족의 한과 한민족의 신명을 피리 여덟 구멍으로 받아들였다고 봅니다.

◎동길산 **오랜 세월 한민족과 함께했다는 피리의 역사가 궁금하다.**

◎김지윤 피리의 역사는 무려 1,500년입니다. 중앙아시아 서역지역 악기로 중국을 거쳐 5세기경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500년 전 조선 성종 때 제작한 '악학궤범'과 김홍도 그림에 나오는 피리가 지금의 피리와 똑같습니다. 2000년대 들어 서양악기를 본뜬 개량 움직임이 있었지만 원형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하면서
 한민족의 한과
 한민족의 신명을
 피리 여덟 구멍으로
 받아들였다고 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공연 팸플릿



김지윤 피리CD
신나라레코드에서 나왔다



현대 들어 피리는 가야금이나 해금에 비해 공연이 매우 드물다. 외국에 공연 나가면 한국의 피리는 처음 봤다는 음악인이 대부분이다. 김지윤 피리 공연이 갖는 특별한 의미가 여기 있다. 1,500년 한국 전통악기 부활은 김지윤의 소명의식이기도 하다.

◎김지윤 시대를 대표하는 악기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불기만 해도 나라의 근심이 사라졌다는 전설의 '만파식적', 신라시대만 해도 대세는 대금이었지요. 그러다 조선시대 들어와서 피리가 대표 악기가 되었습니다. 피리가 뜨면서 대금도 피리라 했고 단소도 피리라 했습니다. 고유명사 피리가 조선시대 들어 대명사가 된 셈이죠. 피리가 다시 한국을 대표하는 악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소리 숲을 열었고 피리 공연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길산 국내외 피리 공연을 자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해 달라.

◎김지윤 2013년부터 매년 피리 연주회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공연은 다섯 번째 피리 연주회입니다. 음반도 몇 되고요, 미국, 체코, 폴란드, 러시아 등지에서 공연을 가졌습니다.

피리는 작지만 강하다. 바이올린처럼 합주에서 대장 노릇을 한다. 합주 주선율을 담당하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피리 같은 관악기가 주선율을 담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현악기가 담당한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 피리로 공연하면 다들 두 번 놀란다. 듣기 전에 놀라고 듣고 나서 놀란다. 김지윤이 들려주는 해외 공연 일화다.

◎김지윤 2012년 6월 소팽의 나라 폴란드에서 연주할 때였어요. 크라쿠프대학 연주홀에서 열린 작곡축제였지요. 한국의 전통음악을 들으려고 모인 금발의 학생들은 손가락 굵기 가느다란 피리를 보고 실망하는 눈빛이 역력했지요. 공연이 시작되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느다란 피리에서 울려 퍼지는 당차고 아름다운 소리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빠져들었지요. 보기엔 소리가 날 것 같지도 않은 피리지만 막상 연주하면 대단한 소리가 납니다. 서양인이 깜짝 놀랄 밖에도.

◎동길산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공연 목록에 '자진한임' 전바탕이 나온다. 일반인에게 생소하다. 소개를 부탁한다.

◎김지윤 자진한임은 201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 전통 성악장르인 '가곡'에서 유래된 곡이에요. 고려시대 전해져 조선 후기에는 성악의 반주선율로 연주되던 곡이 독자적인 기악곡으로 파생했습니다. 그 곡이 현재 '자진한임'이라고 불리는 곡으로 전체 7곡의 가곡 선율에서 유래한 곡입니다. 전 바탕, 그러니까 전체는 7곡이며 곡마다 높은 음악적 기량을 요구합니다. 자진한임 특징은 피리의 사용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가곡 반주선율로 연주할 때는 보통 세 피리를 쓰지만 기악곡 자진한임은 향피리를 쓰니까요. 피리의 종류는 셋. 향피리, 당피리, 세피리죠. 향피리는 서역지역에서 유래되었지만 고향 향을 써 향토화된 우리 피리란 뜻이고 당피리는 중국 궁중음악인 대성악이 고려 때 도입되면서 함께 전해진 피리입니다. 세피리는 조선 후기 가곡이나 풍류음악을 실내에서 부르는 방중악(房中樂)에 사용되던 크기와 볼륨이 작은 악기입니다. 실내에서 부는데 소리가 크면 안 되니까요.





말문을 열다

“서울과 부산의 문화 간격을 좁히고 싶어요.”

피리의 종류는 세 가지지만 대개는 향피리로 연주한다. 피리는 합주로 연주될 때 리더를 하는 악기다. 조선시대에는 관악합주 삼현육각(三絃六角) 편성의 음악이 성행했다. 삼현육각은 대표적인 관악합주 악기 편성의 하나. 향피리, 돌, 대금, 해금, 장구, 북 등의 악기가 쓰인다. 이 밖에도 피리는 국악 장르에 빠짐없이 편성되는 악기며 합주 주선율을 담당하는 중요한 악기다. 국악의 장르는 크게 정악과 민속악으로 구분한다. 김지윤은 국가무형문화재 제46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 보유자 정재국 명인에게 정악을 사사한 이수자다.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44호 삼현육각 보유자 최경만 명인에게 민속악을 사사했다. 예지당 피리독주회는 이십여 년 서울에서 두 명인에게 울곧게 사사한 정악과 민속악 음악을 부산에서 선보인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지윤 1994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협연 이후 부산에서 처음 가진 피리 공연은 2015년 부산마루국제음악제였습니다. 부산진구 연지동 국립부산국악원에서 협연했죠. 이후 정기적으로 부산에서 공연을 갖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공연도 반응이 뜨거웠고요. 앞으로 부산과 대면할 기회를 늘려 나갈 예정입니다. 그간의 공연을 통해 부산에서 국악의 가능성을 확인한 까닭이죠. 8월 국립부산국악원 피리독주회 이후 서울에서도 관심이 많아 지난 8월 31일 서울 양재동 M극장에서 앙코르 피리독주회를 가졌습니다. 국악방송에서 저의 공연실황과 인터뷰를 내보냈고요. 'FM국악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시간 반 동안 전국에 방송했지요. 연말에는 부산시민을 위한 송년음악회를 엽니다. 수영구 북천문화공간 VINE(바인)에서 정기적으로 해설이 있는 음악회도 가지고요. 바인 음악회는 연주와 해설, 대화가 어우러진 국악과 클래식 의 재미있는 만남이 될 겁니다. 미국 델타대학 국제교류 음악회를 위해 9월 25일 출국할 예정이구요. 내년에는 저희가 한 국으로 초청할 계획인데요, 음악회 장소를 서울이 아닌 부산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할 때는 보이지 않더니 이제 부산이 보이네요.” 김지윤에게 부산은 고향이다. 부모가 있는 곳이고 친구가 있는 곳이고 부산예고 동기와 선후배가 있는 곳이다. 올해 마흔셋, 고향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서 부산에 대한 생각이 깊다. 해운대구 중동에 작업실을 낸 것 역시 부산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표현하려는 수구지심의 발로다.

“서울과 부산의 문화 간격을 좁히고 싶어요.” 김지윤의 활동 영역은 다양하다. 2013년부터 매년 가진 피리독주회는 물론 음반 발매와 피리교본 발간 등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서울대, 이화여대, 서울교대, 단국대, 추계예대, 국립전통예술고 등에서 강의한 20년 경력 학교현장 경험도 큰 자산이다. 연주로, 음반으로, 교본으로, 현장 강의로 서울과 부산과 문화 간격을 좁히고 싶다는 김지윤 바람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졌으면 한다. 그건 곧 1500년 전통악기의 복원이며 부산 국악의 새 지평이다.

서울과 부산의 문화 간격을 좁히고 싶어요

12+ SEASON 2016/17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И ДУХОВНОГО РАЗВИТИЯ РС (И) ВУЗЫ И ШКОЛЫ МУЗЫКИ РС (И) ИНСТИТУТ ИМ. В.А. БОСЫКОВА

ЦЕРЕМОНИЯ ЗАКРЫТИ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КЛАССИКА БЕЛЫХ НОЧЕЙ»

8 ИЮНЯ - 3 ИЮЛЯ

VI МЕЖДУНАРОДНЫЙ ЮНОШЕСКИЙ КОНКУРС «СКРИПКА СЕВЕРА»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КЛАССИКА БЕЛЫХ НОЧЕЙ»

Победители VI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юношеского конкурса «Скрипка Севера» Симфонический оркестр ГТОиБ. Солисты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T&B Entertainment

KIM JIYOON
(Пир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2/07
17-00
ГТОиБ

ИМ. Д.К. СИВЦЕВА СУОРУН - ОМОЛЛООНА

Дирижер - Но Тэ Чол

Справки по тел.: 316-003

2017년 6월 러시아 아쿠츠크 백야 국제 뮤직페스티벌 포스터



소리쇼 공연 한 장면

가덕도가 품은 역사를 오픈뮤지엄으로 연결하자

글 | 홍순연 · (사)삼진이음 이사, 동서대, 동아대 출강 중



부산에는 해안선을 따라 크고 작은 섬들이 존재한다. 영도, 오륙도, 죽도 등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이 부산에는 있다. 그 중에 낙동강의 끝자락에 삼각주로 형성된 섬들, 진우도, 신자도, 장자도, 지금은 섬이라고 할 수 없는 놀차도까지 많은 섬들이 형성되어 있다. 그 외 모래톱처럼 밀물과 썰물 차에 섬이 사라지기도 하고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섬들도 많이 있다. 1960년 초만 하더라도 이곳에 갈대를 비기 위해 움막을 짓고 보름씩 생활을 했다고 기억하는 어른들도 있지만 지금은 보호구역으로 묶여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중에 무인도가 아닌 사람이 사는 가장 큰 섬이 바로 가덕도이다.

가덕도는 컨테이너 신항이 들어서기 전만 하더라도 어촌마을로 대구, 피조개, 송어 등 다양한 마을의 주수입으로 형성된 지역이었다. 일부 해안경계구역으로 묶여있어 밤에 조업을 할 때는 해군들의 지도를 받으며 조업을 했으며 그 경계를 모르는 외지 낚시꾼들은 해군경비경에 한 번쯤 올라타 신분확인을 받은 기억이 있는 분들도 많았다. 그러니 당시 가덕도는 그렇게 쉽게 갈수 있는 장소는 아닌 듯 했다. 송어철, 대구철이 될 때 즈음 반짝 손님들이 몰리는 아주 조용한 섬이었다. 지금도 생각하는 것이 한번 가덕도를 가려면 용원에서 배를 타고 가덕도 선창까지 가야했고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대항, 외양포 등으로 이동하는 뱃길만이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다. 30분 남짓 걸리는 이 뱃길 위에서 먹는 바다 맛처럼 짭조름하고 시원한 느낌의 컵라면 맛은 어디에서 먹지 못하는 일품의 맛이었다. 이러한 곳에 거가대교가 생기고 부산에서 자동차로 언제든지 갈수 있는 장소가 된지 벌써 7년이 넘어서다. 그러면서 가덕도는 옛 모습보다는 펜션과 상점들이 즐비하고 새로운 외지인들을 맞이하는 장소로 변모하게 되었다. 주말이 되면 차들에 막혀 시원스럽게 가덕도를 다녀본 적이 없는 듯하다. 기존에 섬이 가지고 있던 생활문화가 사라진 가덕도 모습이 더욱 아쉽다. 그럼에도 가덕도가 접근하기 좋아짐에 따라 좋은 점도 있다. 바로 다양한 역사 문화자원들이 즐비한 장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천선진성, 왜성, 흥선대원군 척화비, 가덕도 등대, 그리고 동백군락지까지 자연과 역사자원이 시대를 거슬러 집약되어 있는 장소임을 거가대교 덕분에 알 수 있다. 그곳에 일제 강점기 시대를 모두 함께한 포진지가 바로 외양포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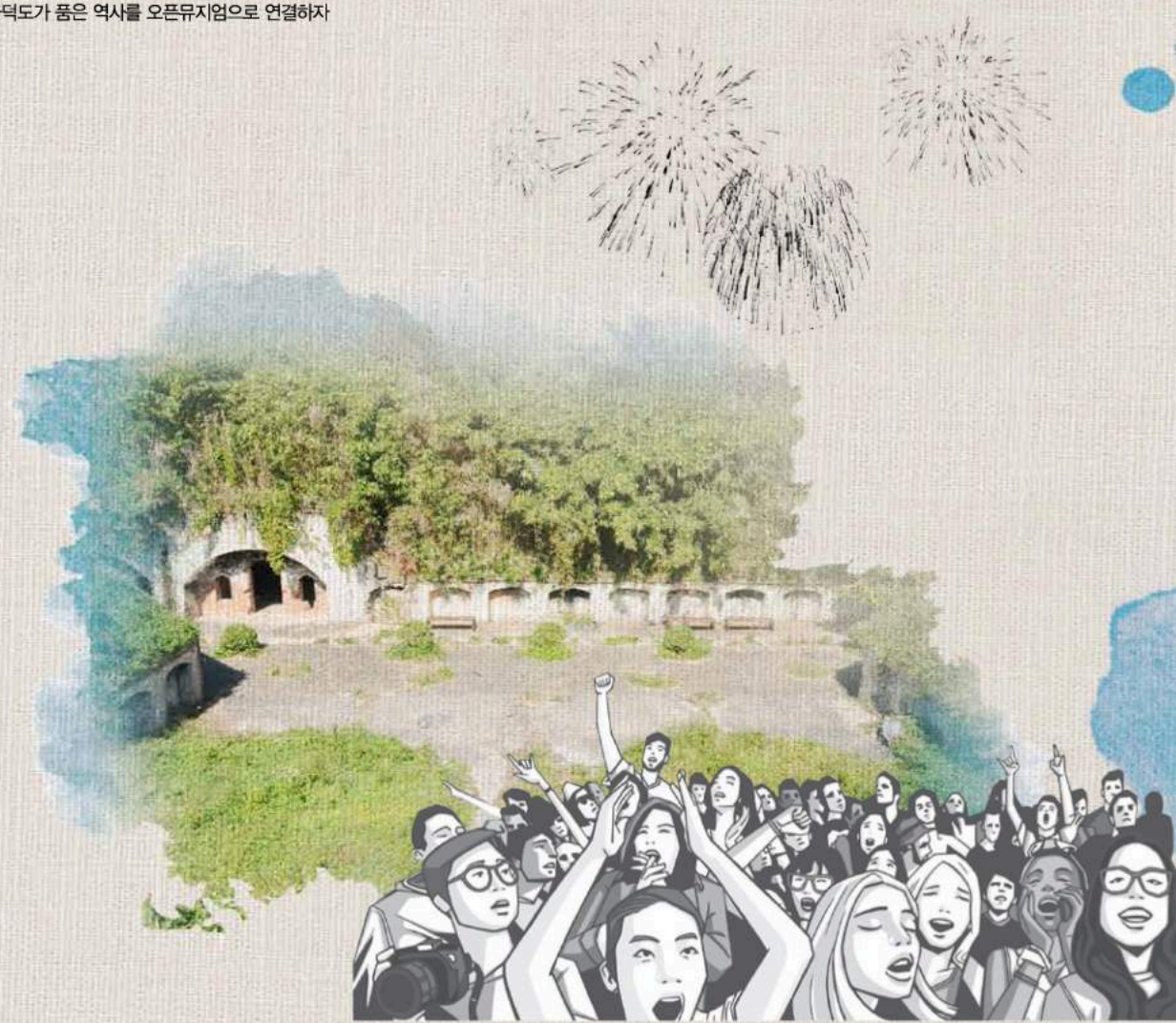
2015년 여름 너무나 더운 날씨임에도 우리는 외양포를 조사하기 위해 차를 타고 대항에서 아슬아슬한 고개를 넘어 움푹하게 숨어있는 외양포에서 그해 여름을 보냈다. 요즘은 가덕도 등대가 개방됨에 따라 방문객도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스무 가구가 되지 않는 이 마을이 특이하게 보이는 것은 1904년 러일전쟁 즈음에 조성된 포진지와 그 배후시설 그리고 지금은 마을이지만 군 막사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외양포로 향하는 산 능선을 넘으면 마을 사이로 겨우 차가 한 대 정도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그 폭이 너무 좁아 산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배를 타고 다니는 것이 더 수월하다. 임시주차장으로 조성된 해안가에 도착하면 판자집에 기와가 올라간 일본식 주택들이 능선을 따라 위치하고 그 끝자락에 포진지가 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했을 우물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곳 외양포는 1904년 2월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일제는 군사거점 확보를 위해 조선 정부를 압박하여 그 해 2월 20일 이 일대를 활용하기 위해서 1904년 8월 3일, 일본군 제3임시축성단 소속의 공병 소좌 마쓰이 쿠라노스케(松井庫之助)가 <해군가근거지(海軍假根據地)>를 구축하기 위해 이곳 외양포에 도착한다. 그리고 그해 1904년 8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제3임시축성단장 공병소좌 마쓰이의 주관 하에 진지와 위병소, 군막사 등이 조성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포진지가 구축되기 이전에 외양포 마을은 민가가 약 70호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을 몰아내고 새롭게 구축된 군진지가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이다. 그 이후 많은 변형이 이뤄지지만 현재는 포진지를 포함하여 약 7채 정도의 건축물이

보존되어 있다. 그리고 외양포 주변 산중턱에는 화약고, 관측진지 등 현재도 외양포의 뒷산 곳곳에 아니, 가덕도 전체 능선 꼭대기 어딘가에는 여전히 당시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역사적 장소이다. 매미소리가 시끄럽던 그해 여름 풀숲을 헤치고 찾은 화약고는 사방이 석축으로 둘러쳐 있었다. 어림잡아 한쪽 측면의 길이가 약 3m 정도가 되었고 높이의 화강석 석축이 16m 정도 길이로 쌓여 있었다. 주변에는 비상시에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계곡과 야영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마당이 있어 며칠을 여기서 살아도 될 듯해 보였다. 외부에서는 전혀 노출이 안 되고 내부에서는 외양포의 해안선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최적지인 듯했다. 또한 능선을 따라 배수구까지 만들어 놓은 걸로 보아 장기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장소였으리라 짐작할 수 있었다.

또한 대항, 새바지의 해안가에는 인공동굴 형태의 흔적도 아직 남아(이) 있었다. 동굴뿐만 아니라 식수와 삶을 영유할 수 있는 서비스 공간까지 모두 갖춰진 인공동굴이 숨어있다. 사실 탐사를 하면서 재미있었던 것은 동굴을 파다가 실패했는지 일부는 막혀진 인공동굴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듯 가덕도는 외양포를 비롯하여 해안선 전체가 우리의 아픈 역사에 한 부분을 품고 있는 곳이었다.

이곳을 한번 해안선과 바닷길을 연결했으면 한다. 작은 배를 타고 선상에서 낚시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인공동굴과 외양포가 품고 있는 많은 이야기를 옛날처럼 선창에서 출발하는 큰 배는 아닐지라도 바다에서 우리의 역사를 함께 이야기하는 스토리 배를 띄웠으면 한다. 그리고 바다와 사람의 삶이 만나는 장소로 외양포를 중심으로 이벤트와 새로운 체험, 그리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장소로 거듭났으면 한다. 외양포가 품고 있는 다양한 역사자원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으면 걸어 다니면서 볼 수 있는 필드뮤지엄이 되면 어떨까? 가덕도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를 영상과 결합하여 기억과 역사를 현재 남아있는 모습에 투영하는 장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기존에 역사를 기록하는 딱딱한 전시물이 아닌 스스로 체험하고 즐기면서 과거의 공간과 현재의 공간이 공존하는 가상공간도 가능하면 좋을 듯하다. 방문객들은 자연스럽게 스마트한 세상으로 들어와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힘을 느꼈으면 한다. 그런 문화를 배경으로 외양포가 살아 숨쉴까? 배가 정박되는 해안선에는 일본의 나오시마 같은 자연과 예술의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지역의 설치작가들과 함께 바다를 배경으로 작품들이 정박지와 어우러져 손님들을 맞이했으면 한다. 자연스러운 포토라인을 거쳐 사람들은 외양포로 들어오게 된다. 사실 나오시마는 자연+문화예술이 결합된 형태로도 매력적인 공간으로 보여지는데 외양포는 역사, 자연 그리고 문화예술이 숨 쉬고 있으니 나오시마보다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클라이막스로 보여줄 수 있는 포진지가 있다. 사방을 견고하게 둘러싼 이 장소는 두 개의 격납고 위를 객석으로 만들고 포를 쏘았을 법한 원형의 바닥판은 무대를 만들어 한여름 밤에 페스티벌을 열었으면 한다. 재즈 페스티벌을 열면 좋겠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객석에 앉아 석양 바다를 바라보며 듣는 음악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 소극장에서 막 튀어나온 연극공연은 어떨까? 자연스러운 예코도 형성될 것이며, 배우의 목소리와 몸짓이 자연스럽게 호흡할 수 있지 않을까? 크지 않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장소 외양포에서 열었으면 한다. 다시 우리는 외양포를 기점으로 가덕도를 엮었으면 한다. 외양포, 대항 그리고 선창까지 뱃길을 이용하여 우리는 역사의 투어를 시작할 수 있다. 임진왜란, 신미양요, 러일전쟁,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전쟁의 역사를 한번 연결했으면 한다. 그 흔적은 가덕도에 남아있으니 말이다. 이 확장은 다시 마주보고 있는 거제도와의 진해만을 함께 연결하여 새로운 항로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이 장소에서 즐겼으면 한다. 장소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 뮤지엄이 꼭 닫힌 공간에 있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픈뮤지엄이 외양포와 그 주변까지 연결될 것이다.



2005년 처음으로 외양포에 왔을 때 어색하면서 낯설게 느껴진 이 장소가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어색하다. 이 장소가 여전히 나에게 어색하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색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다. 얼마 전 다시 방문했을 때 외양포 능선을 따라 도로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제는 그렇게 남겨진 장소가 어떤 이들에 의해 다시 개발이라는 모습으로 어떻게 탈바꿈될지 모른다. 펜션이 들어서고, 현란한 간판이 내걸려져 가덕도가 가진 자연과 경관 그리고 지역의 자원을 품은 가덕도의 맛이 사라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생존력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행스러운 건 외양포는 여전히 해군사령부 소유의 토지이므로 더욱 빠르게 공공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지 않을까?

내 마음속 작은 세상 꿈을 그리다

글 | 전용미 · 드림 꿈 센터 대표, 문화예술교육강사와 심리상담, 가족상담, 학교상담전문가

‘예술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이웃을, 자신의 지역을, 사회를,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미국 시나리오 작가이자 비평가인 Tony Kushner는 말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꿈다락) 프로그램이 그러하다.

‘엄마, 일어나요. 토요일이야. 꿈다락 가야해요.’ 토요일 이른 아침 아이가 먼저 엄마를 깨운다. ‘엄마, 빨리 빨리.’ 엄마보다 한 걸음 앞선 아이는 엄마를 끌며 재촉한다. 무엇이 이 아이를 설레게 한 걸까? 수업장소에 들어서자마자 와락 달려들어 강사의 품에 안긴다. ‘선생님, 보고 싶어서요. 오늘은 뭐해요.’라고 묻는 얼굴에 호기심이 가득하다. 아이를 위해 신청했던 부모는 어느새 아이보다 더 신나한다. ‘부모’라는 이름 때문에 제한되고 참아야 했던 느낌과 감정을 독립된 개체로 수업에 쏟아 붓는다. 그들의 얼굴에 편안함이 퍼진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에게 물들어간다.

예술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이웃을, 자신의 지역을, 사회를,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사람은 누구나 꿈을 꾸며 살아간다. 꿈은 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부모에게도 꿈은 있다. 우리의 꿈은 거대하거나 화려하지 않다. 아주 소소하고 따뜻한 꿈을 꾸다. ‘내 마음속 작은 세상 꿈을 그리다’는 우리의 마음속에만 있는 작은 꿈을 시각화 시키는 작업이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수업대상은 모자원, 한부모가족, 저소득층 가족,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모두 가족이다. 다양한 대상 중에 가족프로그램을 기획한 의도는 가족의 건강성이 사회로 파급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건전한 가족문화가 건전한 사회문화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 한 인간의 탄생에서 발달·성장·적응에 이르기까지 가장 직접적이고 원초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가족이다. 가족은 사회의 여러 제도들 가운데 본질적이고 중요한 기본 단위이므로 가족 내에서 인간의 기본욕구를 충족하고, 성장에 필요한 행동양식을 익히고, 인간관계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만든다.

그러나 밥상문화가 사라지고 디지털 문화가 급성장하면서 가족의 문화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 가족이 식탁 앞에 함께 있어도 대화는 없다. 아이는 게임과 SNS, 아빠는 스포츠와 뉴스, 엄마는 쇼핑과 드라마 등 각자 휴대폰에 빠져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는다. 집안에서 대화도 특이나 문자로 주고받는다. 자녀의 학년이 올라가면 갈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고민과 문제가 있는지 가족은 알 수 없다. 한 공간에 있으나 전혀 다른 세상을 산다. 충분한 감정교류 없이 형성된 가족관계는 미성숙된 자존감, 비행청소년, 자살, 심각한 우울증, 부부갈등,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 왕따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미술을 매개로 건강한 가족문화, 지역문화, 사회문화를 만드는데 있다.

꿈다락에 처음 참여하는 가족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부모는 아이를 위한 책임감에, 아이는 부모의 손에 끌려 억지로 온다. 첫 수업은 두리번두리번 탐색으로 시작된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어색하고 조심스럽다.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하고 잘 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하지만 어색함과 조심스러움, 고민과 걱정은 이 때 뿐이다. 강사에 대한 다른 가족들에 대한 경계심은 2차시가 시작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풀리고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내
마음속
작은 세상
꿈을 그리다

꿈을 상상하고, 꿈을 그리고, 꿈을 만들고, 꿈을 담고, 꿈을 나누는 다섯 단계에서 자신을 드러내어 표현하는 폭과 깊이는 커진다. 자기 내면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자기를 발견하고, 익숙하기에 놓치고 있던 가족의 모습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된다.

중 2인 아들은 말을 하지 않는다. '좋다, 싫다' 표정도 없다. 사람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빠는 모른다. 하드보드지 위에서 아빠랑 낙서를 한다. 자신의 모든 힘을 손가락 열 개에 초 집중시켜 볼펜을 돌린다. 얼마나 쏟아 부은 것일까? 볼펜은 망가지고 하드보드지는 구멍이 나버렸다. 아이의 마음에 파동이 일어난다. 입 꼬리가 실룩실룩 움직이기 시작한다. 표정이 달라졌다. 아빠를 보며 웃는다. 우리는 모두 놀랐다. 옆에 앉은 동생의 팔을 툭툭 치며 말을 건다. 반장을 하겠다며 제일 먼저 손을 든다. 아이가 변했다.

학교 다닐 때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과목이 미술이었던 엄마는 한지를 손으로 찢는 단순한 작업조차 두려워한다. 망치면 어쩌나, 이상하게 보면 어쩌나, 복잡한 마음이 보인다. 자기 생각과 느낌을 담는 것이 미술임을 인지하는데 까지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다. 자신감이 생기자 창의력은 덩으로 불는다. 작품이 완성되는 순간순간 만족과 행복이 넘친다. 엄마의 행복한 기운은 아이에게로 전이된다.

늦둥이 아들의 사춘기가 시작됐다. 말과 행동이 통명스럽다. 엄마가 말을 하면 중간에 자르고 짜증으로 응대한다. 아들이 주는 서운함을 '난 엄마이니까?'하며 가슴을 쓸어내린다. 아들과 엄마가 마주보고 앉았다. 아들이 먼저 엄마에게 서운했던 마음을 실에 담아 건넨다. 엄마는 아들의 뾰루통 했던 감정을 알게 되어 '그랬구나, 미안해.'하며 실을 받는다. 엄마도 마음에 담아 두었던 이야기를 실에 담아 아들에게 건넨다. 아들은 생각 없이 툭툭 던진 말들이 엄마에게 상처가 된 것을 알고 눈물을 흘린다. 엄마가 아들의 손을 꼭 잡는다. 잡은 두 손으로 마음이 전해진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았던 실들이 교차되면서 그림이 된다. 물감처럼 색이 섞이지 않아도 다양한 색을 만들어 낸다. 이것이 가족이다. 각자 고유의 색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색은 가지고 있으면서 조화롭게 어울리는 것이다. '가족이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 가족이니까 이쯤이야'라는 생각 때문에 생긴 오해와 서운함은 관계의 벽을 만든다. 아들과 엄마는 배웠다. 서로 얼굴 보며 사소한 것이라도 마음속에 일어나는 느낌과 감정들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놀이의 경험은 많은 활동 중에 가장 오랜 시간 기억에 남는다. 학교 다닐 때 배운 수학공식은 기억나지 않아도 놀이의 규칙과 방식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딱지치기와 땅따먹기로 한 판 논다. 부모들은 그 순간 부모라는 자리에서 잠깐 해체가 된다. 부모는 아이와 친구가 되어버렸다. 놀아주는 것과 노는 것이 다름을 아이들은 오롯이 느낀다. 또한 아이들은 신나게 놀면서 사회의 규율과 규칙을 자연스럽게 익힌다. 상대에 대한 양보와 배려를 몸으로 배운다. 책 속 글로 배우는 것보다 머리에 쑥쑥 박힌다.

꿈다락에 참여한 사람들은 웃음이 가득한, 사랑이 가득한, 행복이 가득한 집이 되는 것이 가족의 꿈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꿈다락에서 그 꿈을 그려가고 있다.

꿈다락은 지금까지 학교나 학원에서 배우고 일상에서 체험한 미술의 세계와는 다르다. 완성된 결과물에 치중하지 않는다. 미술은 정답이 없다.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다르게 표현한다.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게 된다. 유명한 작가 작품, 기발한 작가 작품, 고대미술부터 현대미술까지 전 영역의 작품들을 감상하며 제한된 사고의 틀을 탈피하게 된다. 제한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게 되면 유연하고 독창적인 사고력이 확산된다. 개인작업은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만족감, 자존감이 커진다. 공동 작업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타인을 존중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을 배워 사회성을 향상시킨다. 나·가족·학교·지역사회·전통문화 등 가족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는 나와 내 주변을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인지체계를 구축시킨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고 혼자보다 함께가 더 행복함을 알게 된다.

문화예술교육이 개인·가족·사회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이 많은 사례와 통계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은 적지 않게 있으나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찾기 힘들다. 자녀가 심리적 안정감 속에서 성숙된 자아를 만들 수 있는 토대는 부모이다. 따라서 부모와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은 건강한 가족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많은 기관과 단체가 가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

문화예술교육을 전달하는 방법은 언어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언어 그 이상을 뛰어 넘은 공감 방법이 예술이 갖는 커뮤니케이션이다. '드림 꿈 센터'는 문화예술을 널리 알려 모든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을 때 까지 전진할 것이다.



문화

돌보기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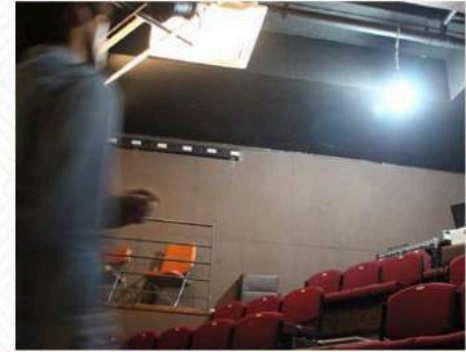
46
가마골 소극장을 가다 정익진

50
가마골소극장 이야기 [좌담]

II

60
문화가 꽃피는 부산의 창작공간들 송수경

50



50



50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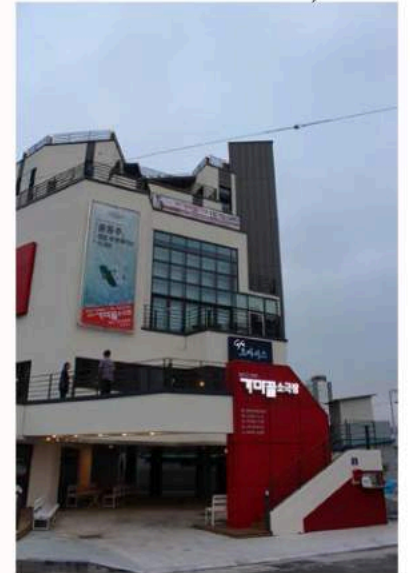
46

가마골 소극장을 가다 -양산박, 오아시스, 소극장, 도요 그리고 아카이브

글 | 정익진 · 시인

정익진
- 1997년 (시와시상) 등단.
시집: 『스켓』 외
2014년 부산작가상 수상.

필자는 기장군 일광면에 지난 달 7일 새롭게 재개관한 가마골 소극장 6층 건물(복합문화공간) 각각의 층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최소화한다. 그보다는 필자가 직접 가마골 소극장에 가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위주로 써 나가고자 한다. 여러 경로로 소식을 접하고 가마골 소극장에 처음 방문한 날은 배우 오달수의 수요예술 공감 문화강연이 있었던 8월 2일이었다. 두 번째는 배우 명계남의 강연과 연극 <노숙의 시>를 동시에 관람한 8월 16일, 그리고 지난 8월 23일 수요일 김미령 시인의 <맛있는 책 읽기>에 참석하게 되어 8월 한 달간 세 번을 가본 셈이다. 특히 김미령 후배 시인의 <맛있는 책 읽기>의 뒤풀이 장소인 1층 목로주점 '양산박'에서 비로소 맥주를 곁들인 화기에애한 자리가 이루어졌다. 최영철 선배 시인을 비롯하여 부산과 다른 지역 동료예술인들과 회포를 마음껏 풀 수 있었다. 문화예술에 관하여 한층 밀도 있는 대화가 오갔고 더욱 반가웠던 것은 진주에서 김언희 시인과 몇몇 시인과 독자들이 찾아주었고 울산에서도 몇 분의 시인 그리고 독자들이 내려와 더불어 분위기를 한껏 무르익었다. 말 그대로 부·울·경의 시인과 예술인들이 한자리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1/1 8월 2일(배우 오달수 수요문화 공감 문화 강연: 2층 카페 오아시스)

가족과 함께 극장을 찾았다. 강연시간이 몇 분 남지 않았다. 강변에 급히 주차하고 극장 입구의 매표소와 목로주점 '양산박'이 위치한 1층으로 향했다. 배우 오달수와 여러 사람이 보였고 강연 장소인 2층 '북카페 오아시스'로 막 오르려는 그때, 함께 온 아들(대학생)이 오달수 배우에게 인중 샷을 부탁하자 기꺼이 응해주었다. 카페에는 이미 많은 시민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우리는 겨우 한 테이블을 차지하고 배우들이 판매하는 냉커피(가마골에는 직원이 없다. 모든 배우와 스텝이 직원이다)를 마시며 강연을 들었다. 그의 자전적 소설 같은 모든 이야기가 흥미로웠다. 배우 송강호는 술자리든 어디서건 작품 이야기만 하는 진정한 배우라고 추켜세우기도 했고, 뭐든지 하려면 극단까지 몰아가야한다는 이윤택 연출가의 예술론을 전하기도 했다. 그의 이야기 중에서 "달수야 웃고 싶지 않으면 웃지 마라."이 대목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이 말은 연극 작업 도중에 이윤택 연출가가 연기가 잘 풀리지 않는 오달수 배우에게 한 말이다. 이 말로 인해 그는 연기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연기가 진정한 연기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오달수가 출연한 영화를 검색해 보았다. 71편 정도로 나와 있다. 이중 내가 본 영화는 <올드보이>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근에 본 <마스티>까지 29편이다. 필자가 영화를 좋아해서이기도 하겠지만 오달수의 출연 영화가 불만해서 일 것이다. <대배우>와 <조선 명탐정시리즈> 외에는 주로 조연이지만 영화를 보면서 그가 언제 등장할까 매우 기다려진다. 강연이 끝나고 시민들의 많은 질문이 이어졌다. 청중 한 분이 연극배우에서 영화배우가 된 계기에 관해 물었다. 대학로의 한 연극에서 그만의 독특한 스텝의 춤을 선보였다고 한다. 그 이후 박찬욱 감독에게 출연 제의 전화가 왔고 영화 <올드보이>에 데뷔함으로써 영화배우의 길이 시작되었다고 답했다. 부산 출신으로 극단 연희단거리퍼에서 이윤택 예술감독과의 배우수업을 거쳐 '충무로의 블루칩', '홍행요정 누적 관객 1억 명' 자타공인 대한민국의 명배우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지역 후배들에게 강한 자부심을 줄 것이라 믿는다.

창문이 많아 전망 좋은 이곳 2층 카페 '오아시스'에서 간단한 음료를 마시며 분위기를 즐길 수 있고, 천장 돌출 부분과 실내 여기저기에 액자로 만든 공연 포스트가 붙어있어 가마골 공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또한, 책을 볼 수 있고 동시에 단체 스티디나 북 콘서트 또는 소모임을 할 수 있는 북카페 '책 굽는 가마'가 있다. 또 하나의 아주 특별한 공간인 가마골의 영원한 연극인 '故 이윤주 기념관'이 소담스럽게 자리하고 있다. 생전에 그녀가 출연하거나 연출을 한 연극을 본 적이 있던 필자에게는 그 감회가 남달랐다. 그녀를 형상화한 조각품이 한 곳에 마련되어 있어 내 마음의 꽃다발을 그녀의 목에 걸어두었다. 대리석으로 된 조각 받침대에 뚜렷이 각인된 글 "이윤주, 너는 우리의 불멸의 영혼. 공기



의 딸들과 함께 있다."오늘도 누군가의 꽃다발이 조각상 옆에 놓여있고 그녀가 사용했던 소박한 책상 위의 난초 화분과 펼쳐진 책으로 그녀의 영혼을 기리고 있다.

2 / 8월 16일 (배우 명계남 강연: 2층 카페 오아시스/ 연극 <노숙의 시>: 3층 가마골 소극장)

영화 <나는 노무현입니다>에서 배우 명계남이 나온 장면이 생각난다. 배우 문성근과 함께 대표적인 노사모인 그는 영화 속에서 메가폰을 잡고 2002년 대선 후보 노무현을 열렬히 지지 연설한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을 실제 만나본 적은 몇 번이 되지 않고 다만 이런 분이 대통령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의 인간적인 매력이 그를 사로잡았고 너무 좋아 하게 되었고 열렬히 지지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향후 정치보다는 배우의 역할에 충실해지고 싶다 말한다. 그리고 훌륭한 배우의 자질로 독서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였다. 독서는 특히 상상력을 자극해서 그 상상력이 배우의 무의식적인 내면을 움직여 연기의 폭을 더욱 넓힐 수 있다는 의미였다.

연극 <노숙의 시>를 보기 위해 3층 소극장으로 자리를 옮겨 지정 좌석(120석 규모)에 앉았다. 극장의 모든 시설 중에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 바로 이 소극장이다. 극장 안 좌우를 살펴본다. 극장의 좌석 배치가 적당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 뒷사람도 감상하기에 불편이 없었다. 무대조명 아래에는 연극을 시작하기 전인데도 배우 한 분(오동식: 김 씨 역할)이 등장. 벤치 위에 앉아 연기에 몰입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다. 연극 <노숙의 시>의 출연 배우는 2명이 전부다. 단 2명의 배우가 2시간가량의 연극을 이끌어 가리라 분명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두 사람의 대사 전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무대일 것이다. 1959년 사라호 태풍의 기억에서 2017년 광화문 광장의 기억에 이르기까지의 실로 드라마틱한 역사를 뒤로하고 연극은 끝난다. 한 여름 밤의 뜨거운 조명 아래서 흘러 두 배우의 땀이 빛났다. 연기도 훌륭했고 조명이나 음향 등의 효과도 관객들에게 잘 전달되었다. 소극장 연극무대는 관객석과 무대 사이가 가깝기 때문에 배우의 연기가 어색하거나 조명과 음향에 조금의 실수가 있어도 극의 흐름이 깨져버린다. <노숙의 시>의 원작은 미국의 극작가 에드워드 올비(Edward Albee 1928-2016)의 <동물원 이야기(Zoo Story)>를 이윤택 예술감독이 우리의 정서에 맞게 재창작하고 연출한 작품이다. 극이 끝나고 관객들과의 대화가 이어졌고 출연 배우와 관객들이 함께 무대 벤치 위에 앉아 사진을 찍는 시간도 가졌다.



3 / 도서 출판 도요 (4층) / 가마골 소극장 아카이브 (5층, 6층)

'도서출판 도요' 이곳의 책임 편집자이기도 한 최영철 시인을 따라 4층 사무실에 올라가 본다. 지금까지 도요에서 출판된 모든 서적이 보기 좋게 책장 속에 잘 정리되어 있다. 사무실 밖으로 야외 테라스 같은 조그마한 공간, 이곳을 약간 개조해 카페로 만들 계획도 있다고 말한다. 5층 6층은 '가마골 연극박물관'같은 곳이다. 지금까지 가마골에서 공연하고 기획한 모든 공연자료(유인물, 팸플릿, 비디오 등등)들이 총망라되어 있고 대출 신청을 하면 열람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통 있는 소극장들이 운영상 난항을 겪으며 거의 다 문을 닫고 있는 실정에서, 이 건물 역시 무엇이 풍족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다. 2012년을 끝으로 거제리 한결아트홀에서 문을 닫고 밀양연극촌에 잠시 간판을 걸어 두었다가 외산상담 끝에 이곳 일광에 정착하게 되었다. 고생(문화계 블랙리스트 1호)도 많이 했고 아무튼 우리 대장님 이윤택 예술감독의 탁월한 능력과 가마골 구성원들의 힘을 모두 모아 이루어진 장소이다."라는 최영철 시인의 말이다.

필자도 부산의 한 시민으로서 부·울·경의 많은 지역민과 전국의 예술인이 함께하여 기념비적인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기획자담
가마골소극장 이야기



일 시 | 2017년 9월 11일(월) 19:30
장 소 | 가마골소극장 2층 (기장군 일광면)
좌담자 | 김문홍 · 연극평론가
 김하영 · 극단 가마골 대표
 이윤택 · 연희단거리패, 가마골소극장 예술감독
 조인곤 · 가마골소극장 대표
사회자 | 정봉석 ·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정 리 | 김경숙 ·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강사



정봉석 : 가마골소극장이 부산 거제동 시대를 접고 밀양 연극촌으로 간판을 떼어간 것이 2012년, 그로부터 거의 5년 만에 부산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986년에 개관한 이래로 광복동에서 중앙동으로, 광안리로, 장림공방으로, 다시 광복동으로, 거제동으로 옮겨 다녔어도 가마골소극장이 부산을 떠난 적은 없었는데, 5년 전에 떠났다가 이제 다시 일광으로 돌아오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윤택 : 가마골소극장이 추구해온 독특한 연극 스타일과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만 뒤흔어지면 여차 없이 간판 떼야 한다고 생각해요. 연극이 가지는 역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옛날 광복동 시절, 박태남 씨의 조은극장하고 헤어질 때는 우리 연극이 잘 될 때였어요. 박현철, 이윤주 콤비가 소위 B급 연극으로 엄청난 관객을 끌어 모았어요. 그때 내가 했던 <햄릿>, <하녀들>, <수업>에도 관객이 많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극장 쪽에서 갈수록 어떤 상업적, 그게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대중적 요구가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불편해진 거예요. 극장은 대중적으로 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되겠다. 가마골소극장 스타일로, 그러면서 거제동 시대로 간 거예요. 그런데 2012년에 옮긴 건 좀 달라요. 왜 옮겼냐면, 가마골소극장 대표였던 이윤주 씨가 몸이 아파서 자체적인 작업을 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간판을 떼면서 김성배 씨한테는 기획소극장을 제안했습니다. 가마골소극장 스타일에만 만족하지 말고 부산 경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극장 성격을 세워라. 그게 지금의 한결아트

출입이다. 그렇게 가마골소극장을 빼서 밀양연극촌에 갖다 놓았던 거예요.

정봉석 : 밀양연극촌에 있던 브레히트 극장에 가마골소극장 간판을 달았었지요.

이윤택 : 밀양에서 소극장 실험연극을 이어가는 동안에도 부산에 돌아오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중앙동이나 원도심에 들어오려던 게 여의치 않던 차에 기장군청에서 와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차성아트홀을 맡아줄 수 없느냐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차성아트홀을 공개한 거예요. 그 당시 어린이 연극을 하고 싶어서 안데르센 극장을 지으려 했는데, 그게 신문에 났어요. 기장군수님이 선뜻 그것도 좋겠다 하셔서 장안에 안데르센 극장을 세웠고 지금 하고 있어요.

정봉석 : 그렇다면 차성아트홀과 안데르센 극장에 이어 가마골소극장이 들어서면서 이제 바야흐로 연희단거리패의 기장 시대가 열리는 셈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곳 일광이 동해안별신굿이 시작돼서 동해 쪽으로 올라가는 기점이라는 거죠. 지난번 극장 개관식에 왔을 때, 이 앞 바닷가에 있는 당산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거기 성황당 나무로부터 갯마을 축제가 시작되고, 별신굿도 진행되고요. 그런데 31년 전, 광복동 용두산공원 올라가는 층계마루에 가마골소극장 문을 처음 열었을 때에도 개관 기념 퍼포먼스로 동해안 별신굿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윤택 : 내가 신문기자를 1월 15일에 관두고, 2월에 우연히 동해안별신굿을 보러 기장에 온 거예요. 그때는 대변행에서 3박 4일간 진행되었어요. 그 곳을 보다가 마지막 거리굿. 그 장면을 보고, 저거 우리 연극이다! 내가 확신했어요. 그 거리굿에 엄청난 연극성이 있었어요. 삼신할매거리에서 무당이 남자인데, 수건 쓰고 치마를 두르면 여자가 돼요. 바가지 집어넣으면 임신부예요. 애는 지푸라기로 뺀다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상용품을 이용하여 대단히 뛰어난 연극성을 보여주더라고요. 그걸 보고 우리 연극의 원형이 저기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미 낫하고 극이 통한다는 건 이론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 곳을 보면서는 발견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거리굿을 보니까 확실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개관 기념으로 동해안별신굿을 올렸습니다. 올리면서 우리 극단 이름이 연희단거리패잖아요. 그게 거리굿패란 거예요. 동해안별신굿 중에서 마지막 거리, 거리굿, 말입니다. 거리패라는 이름도 동해안별신굿에서 취하고, 창단을 위한 준비공연도 동해안 별신굿이고, 그래서 지금 바로 그 본고장에 돌아온 거예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게 운명적으로 자연스럽게 돌아온 거예요.

정봉석 : 연희단거리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영문으로 'Street Theater Troupe' 이라고 적혀있던데.

이윤택 : 제일 처음에는 Street Theater Company라고 했어요. 사실은 내가 원래 순회 이동극단을 꿈꿨거든요. 그래서 Street theater라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거리극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는데, 당신들은 거리극만 하는 단체가 아니다. <오구>라든지 이런 건 거리극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신들은 대단히 모던한 연극도 한다. 특히 외국에서도 그런 향의가 온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우를 수 있는 이름을 찾다가, company는 아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조직 이니까 극단, 회사가 아니라는 거지, performance group이라고 하려다가 줄여서 troupe이라고 하니깐 연극무리들, 패거리가 된 거지. 그래서 Street Theater Troupe, STT, 거리극패로 이름이 된 거예요.

정봉석 : '거리'라는 말이 여러 가지 중의적인 뜻이 함축되어 있네요, street는 일반적인 거리이고, troupe은 연극을 하는 집단으로서 패거리이고, 아까 말씀하신 동해안별신굿에서의 거리는 장면 단위, 한자로 쓰면 과장(科場)이라는 뜻이죠. 현대극에서는 막(幕)이라 하고, 영어로는 Act이니, 굿거리의 곧 액팅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연희단거리패가 그 이름에 갖는 본래의 자리로, 거리굿이 시작되는 그 자리로 왔다고 볼 수 있네요.

이윤택 : 재미있는 게 성황당 있는 그쪽이 갯마을 영화가 촬영된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영화의 거리로 조성될 예정이예요. 그 맞은편에 갯마을 오영수 문학비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이 최백호 거리예요. 최백호가 가장 출신이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가마골을 가운데 두고 한쪽은 영화의 거리, 한쪽은 최백호 거리가 되니까, 이 지역 전체가 자연스럽게 예술의 거리로 조성되는 거예요. 이 다리를 경계로 저기는 바다, 여기는 강이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나폴리 가보면 정말 조그맣거든. 세느강도 그렇고, 보통 강에 다리가 작아요. 조그맣지만 예술문화가 함께 하니깐 명소가 되듯이. 여기에 마침 동해남부선이 새로 개통하여 일광역도 생겼고, 여기가 하나의 문화밀집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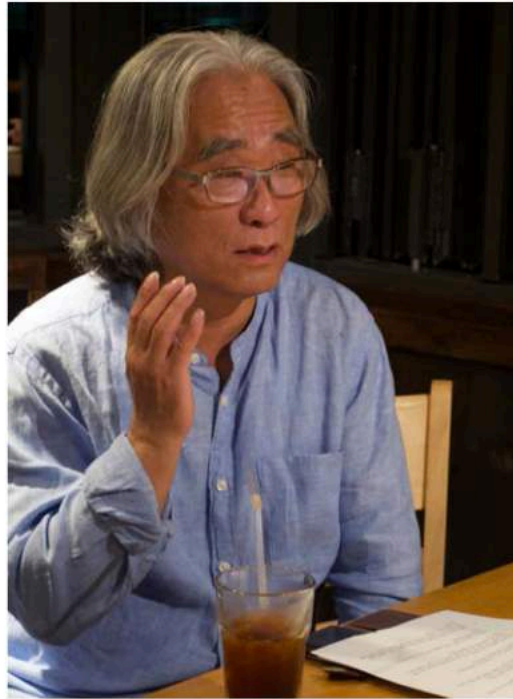
정봉석 : 가마골소극장이 재개관하면서 이윤택 선생님께서는 "2017년 가마골소극장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시민연극의 시대를 열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새로운 시민연극의 시대라는 개념을 함축적으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이윤택 : 중요한 이야기인데, 원래 시민연극이란 이름을 들은 건 제가 2002년에 내 작품 중 <문제적 인간 연산>이란 작품이 불어로 번역이 돼서 생드니 극장이란 데서 공연이 됐어요. 생드니라는 곳이 파리 북단에 이슬람인이나 터키인 등 외지인들이 사는 빈민촌이예요. 거기에 극장이 하나 있는데 유명한 프랑스의 스트라디 바디라는 젊은 연출가가 시민연극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연극이 소통한다, 쉽게 말해서 연극이 연극으로서 존재한다기보다는 시민과 말을 한다, 심지어는 말을 하는 방법까지 얘기하더군요. 일테면 몰리에르 작품을 공연한다면, 연극은 가능하면 단순하게, 그리고 연기는 분명히 좀 더 크게, 과장되게, 그리고 관객한테 분명하게 얘기해주는 것, 질난 척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징적이거나 모더니즘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시민들과 토론할 수 있는, 심지어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연극. 이걸 시민연극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티켓 가격이 1만 원이었어요. 그때 프랑스 극장은 5만 원, 10만 원 했는데 1만 원. 초대권 없음. 우리가 갔을 때 그 친구가 직접 표를 끊어서 우리를 보여줬어요. 더 쇼킹한 것은 '칸토르'라는 유명한 폴란드의 연출가가 있었는데, 그가 죽고 나서 칸토르 극단이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해외 공연을 하다가 폴란드는 못 사니까 그곳에서 거의 상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생드니 극장이 그런 극장이예요.

정봉석 : 중앙동 시대였던가요? 가마골소극장에서 칸토르의 작품을 공연한 적이 있죠? 이제 일광 시대를 열면서 시민연극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이미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여겨집니다만.



김문홍



이운택



조인곤



정봉석

이운택 : 〈허재비놀이〉를 했죠. 칸토르가 그런 말을 했어요. “21세기에도 여전히 연극이 존재하려면 유랑극단 형태를 뭘 수밖에 없다.” 그게 거리극이에요. 왜냐하면 전부 미디어 매체에 다 잡혀먹는다는 거예요. 이곳 일광에 극장을 지으면서, 어떤 연극을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시민연극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작품이 〈홍도야 울지 마라〉였어요. 이게 대박을 쳤어요. 3시에 공연을 했는데,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옛날 시네마 천국처럼 보러온 거예요. 동네 이장님이 마이크 방송까지 했어. “홍도야 울지마라 시작합니다.”라고 동네극장으로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서 어린이극을 했거든요. 이후 7시 반에 공연하게 되면서 가장 어려운 〈노숙의 시〉를 해봤던 거예요. 그런데 〈노숙의 시〉도 좋았어요. 이번에 〈운동주〉하죠. 이어서 브레히트의 〈서푼짜리 오페라〉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연극들이 연극 자체로 예술적이거나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양하게 개성적으로, 관객과 적극적으로 만나는 것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정봉석 : 기존에는 ‘대중극’ 이런 쪽으로 용어를 많이 쓰셨는데 ‘시민연극’이라고 할 때는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인식의 변화를 함께 추구하는 연극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개관 이후 이어지는 작품들을 보면 대중극, 부조리극, 서사극, 교육극 등 기존에 해오던 연극 작업들을 이어가는 셈인데, 여기에 굳이 시민연극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운택 : 이렇게 말하게 된 동기는 사실은 지난해 촛불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좌우로 대립해왔는데, 내가 판단할 때는 좌고 우고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때 ‘소시민성’이 ‘소’자를 떼고 시민성으로 확대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나라의 정치뿐만 아니라 문화까지도 민중문화, 아니면 순수문화 이런 이분법적인 문화권력이 힘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는 연극이 이분법적인 문화권력, 중앙집권적인 권력이 아니고 대단히 시민적이고 지역 자치적인 가치들을 고려해서 시민연극이란 장르를 내걸게 되었습니다. 특히 브레히트가 꿈꿨던 게 사실은 토론으로서의 연극인데, 그런 연극을 우리가 해보자. 〈노숙의 시〉도 그렇게 해서 공연한 작품입니다.

정봉석 : 김문홍 선생님께서 가마골소극장 개관식 이후 공연된 작품들을 관람해오셨을 텐데요. 물론 그 이전에도 주요 레퍼토리들을 비평해오셨지만, 일광 시대를 여는 작품들을 연극 평론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문홍 : 처음 여기 왔을 때는 이곳에 관객들이 들어오겠는가 생각이 들던데, 개관식 때만 2~3백 명이 전국 각지에서 오는 걸 보고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지금도 생각하기를 가장 일대는 연극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건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좀 더 대중 친화적인 그런 극을 통해서 연극이라는 게 참 재미있구나, 보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극장을 알리고, 극단을 알리면서 중간 중간에 여기서 해보고 싶은 실험적 극이나 문제적인 작품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노숙의 시〉를 보러 왔을 때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왔더군요. 가마골소극장 이름을 듣고 각지에서 몰려오는 걸 보니 대단하구나, 잘만 운영한다면 확산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대중 친화적이고 재미있고, 그러나 천박한 재미보다는 어떤 연극이라는 매체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공연을 다양하게 해서 이 일대 주민들에게 연극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봉석 : 저도 〈노숙의 시〉를 보면서 명계남 씨의 연기력을 새삼 실감했습니다만, 사실 원작인 에드워드 올비의 〈동물원 이야기〉는 난해하기로 소문난 부조리극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상황에 맞춰서 전혀 다른 작품으로 재구성해내는 능력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개관기념공연인 〈홍도야 울지마라〉는 동네 사람들의 취향에 맞춘 전략이라 생각했는데, 굳이 〈노숙의 시〉로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러한 실험이 가능할까 염려도 되었습니다.

이운택 : 네, 가능했어요. 어른들도 어렵지만 재미있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4.19, 사라호 태풍 다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장 이런 분들이 천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착박한 현실 속에 살아서 그렇지 이분들이 판단력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노숙의 시〉도 잘 보시더라고요. 재미있게 보는 것만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주는 것, 시민극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인곤 : 이윤택 선생님이 30년 전에도 <시민K> 같은 작품을 했고, 고전이라 생각하는 <홍도야 울지마라>도 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홍도야 울지마라>도 세상을 향해서 던지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시민K>와 같은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노숙의 시> 같은 작품은 세상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이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걸 보여주고 또 그런 것을 실천하는 곳이 가마골 소극장입니다.

이윤택 : <윤동주>는 교양으로 중고생들을 위한 일종의 교육극이었죠. 그리고 이제 곧 막을 올릴 <나는 캄패입니다>(브레히트 원작 <서퍽피리 오페라>)는 대학생을 위한 것으로 실험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우리가 기획하는 것이 실버 연극, <노부부의 연극놀이>(최보영 작, 부일신춘문예 당선작)를 하고, <산너머 개동아>(김경화 작)를 성인 버전으로 합니다. 이돈희라고, 김경화한테 연극을 배운 친구입니다. 김경화를 위한 추모 공연으로 하는데, 이돈희가 동래야류의 이수자이기 때문에, 질편한 할미 영감 그 육적인 걸 제대로 다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를 위한 극이 아니라 노인을 위한 연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정말 학생에서 노인들까지 연극이 다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즐기면서도 모든 관객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연극, 그게 시민연극입니다.

정봉석 : 대중극에서 시민연극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어울리는 장르들을 서로 아우르면서 가마골의 일광 시대와 함께 마치 새로운 전성기를 맞는 것 같습니다. 가마골소극장 대표를 맡고 있는 조인곤 씨는 그동안 이윤택 선생님과 함께 30여 년을 유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러면서도 가마골소극장을 지켜왔는데, 여기 일광 시대를 여는 감회를 밝혀주시죠.

조인곤 : 예전 중앙동과 광복동을 유랑하던 시절, 당시에 선배들이랑 선생님은 다 올라가셨고 오달수 선배와 구현철 선배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항상 일과가 작품을 올리고 연습을 하고, 마치면 오전에 기획 작업을 하곤 했는데, 항상 새로운 작품을 할 때마다 이윤택 선생님이 검증하러 오셨어요. 그때 다시 작품에 관해서 토론하고 수정하고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늘 이윤택 선생님께서 팜플릿에 글을 쓰십니다. "건투를 빈다. 우리는 언젠가 만날 것이다." 이렇게 글을 쓰시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윤주 씨가 25~26살 때 극장을 맡아서 광안리 때도 꼭 지키고 있었는데, 우리는 극장에서 무작정 그 시간들을 버티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삶의 공동체라고 늘 강조하셨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순간을 건넌다는 생각이 강했다면, 이제 여기는 평생 우리가 이루어나갈 역사적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층에 가게가 있고, 2층에 커피숍, 그리고 3층에 공연장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삶의 연극의 터전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 가장 시대를 여는 의미는 연극이 삶과 같이 가는 것, 연극이 힘들게 버티면서 가는 게 아픔을 보여주는 겁니다. 삶의 연극이란 우리가 만드는 연극적 일상, 스스로 아침에 깨어서 우리의 가게를 열고, 우리의 극장을 지켜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평생 여기서, 연극하는 식구들의 미래가 보장되고, 연극을 꿈꾸는 이들이 함께 공부를 해나가고, 마음껏 실험하고 연극만 생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어져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정봉석 : 네, 그동안 애써 버텨온 보람과 새로운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역시 가마골소극장하면 이제는 고인이 된 이윤주 씨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극장을 지키면서 가마골 연극을 일구어온 저력이 대단했었는데..., 조인곤 씨의 아내로서 또는 연극 동지로서 이윤주 씨를 회상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조인곤 : 이윤주 씨는 94년도에 저와 같이 입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성대 연극과에 재수를 실패하고 그다음 해에 다시 들어왔어요. 워크숍을 두 번을 거치는 바람에 평소 저를 선배라고 불렀었죠. 저는 이윤주의 팬이었습니다. 무슨 공연을 하든지 정말 감동적이었고, 강력한 에너지와 사람의 폐부를 찌르는 감동을 주는 배우로서의 자질이 탁월했습니다. 이윤주 씨의 일기장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간이 태어난 목적은 타인을 사랑하는 것. 이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이윤주 씨에게는 연극이 곧 구원이었습니다. 종교처럼 연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윤택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세상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연극을 언제든 펼칠 수 있었던 연희단거리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윤주 씨는 단원들에게 "아, 이 사람과 함께하면 평생 같이 믿고 할 수 있겠구나."라는 신뢰를 심어줬습니다.

이윤택 : 우리 극단에는 두 계열이 있어요. 극단 가마골 대표였던 이윤주는 경성대학교에서 두 번 떨어진 친구예요. 그러니까 제도권에 아예 안 맞는 거예요. 이윤주가 화가 나서 "경성대학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버린 거야"라고 했었는데, 이윤주라는 자체가 그런 제도권하고 안 맞는 친구예요. 반면에 연희단거리패 대표인 김소희는 최고의 제도권을 나온 사람이잖아요. 연세대학교 국문과를 나왔는데 그곳은 대학극 체제거든요. 오태석 선생과 작업한 친구예요. 그리고 동국대 대학원 안민수 제자이기도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 최고의 제도권 제자가 김소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김소희가 우리 극단에 들어온 거예요. 오태석 선생이 자기 극단 목화에 오지 않았다고 김소희하고 한 20년 가까이 말을 안 했어요. 진짜로 그랬대요. 그런 김소희가 연희단거리패를 우리극연구소 1기로 들어왔다가 한때 실망을 했어요. '왜 이렇게 우리를 갑갑하게 하지?' 그때 실망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윤주하고 라이벌이었거든요. 오필리아를 김소희가 처음 했다가 이윤주한테 뺏겼어요. <홍도야 울지마라>에서도 이윤주가 홍도를 하면 김소희는 해석을 했어요. 그러다가 뒤에서 돌이를 만나게 한 것이 장 주네의 <하녀들>이에요. 근데 서로 연기 스타일이 달라요. 김소희는 아무래도 제도권적이예요. 해석을 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고, 역할과 연기적 목표가 정해져야 연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나 이윤주는 그날그날 날씨 따르듯이 변하는 스타일이에요. 이윤주는 준비를 안 해요. 그냥 들어가서 툭 쳐버린다고요. 대단히 직관적인 연극을 하는 거고, 김소희는 대단히 지적인 연극을 하는 거죠. 돌이가 <하녀들>을 하면서 서로 싸우더라고요. 이윤주는 김소희 선배의 연기가 가짜처럼 보일 때가 있다. 어떻게 연극을 하는데 열흘 동안 똑같이 연기를 하나. 연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 위선이 아니냐. 김소희는 그게 아니지 않냐. 연극은 목표다 과제다 과업이다. 배우가 어떤 상태가 오든지 자기가 지켜야 할 역할을 지켜야 한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간다. 이윤주는 사람이라는 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서로가 다르면서도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정봉석 : 마치 이윤택 사단의 두 축을 이루는 힘들을 상징적으로 압축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감성과 이성의 대결로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대답하는 힘들을 연출가로서 어떻게 조율하셨습니까?

이윤택 : 그 둘을 데리고 얘기를 했어요. "김소희의 이러한 말은 대단히 중요하다. 윤주 너는 그래서 너의 연기가 항상 불안한 거다. 연기에 들어가기 전에 불안하지 않냐?"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김소희 말을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김소희한테도 "너는 너무 제도권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연희단거리패의 메소드를 주는 연극에서 김소희는 많이 동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로 많이 동원되는 게 이윤주, 이승현, 김미숙 이런 배우들이지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서로의 성격을 굉장히 존중했습니다. 이윤주가 볼 때 그래도 김소희라는 사람이 일단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잖아요. 내용도 좋고, 연극인들이 다 사랑해요. 김소희 하면 윤석화, 박정자 그 이후에 가장 촉망받는 배우예요. 이윤주도 그런 선배를 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 둘이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극단을 잘 키워왔죠.

정봉석 : 그동안 김소희 대표가 연희단거리패를 밀양연극촌을 본거지로 활동해왔다면, 이윤주 대표는 극단 가마골을 가마골소극장을 중심으로 이끌어왔습니다. 김하영 대표님은 이윤주 씨의 뒤를 이어서 극단 가마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일광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 제가 이윤주 선배로부터 배우 연극인의 자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소중한 가치를 이어가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광 시대에도 변함없이 이어가야 할 작업은 선배들이 했던 작품을 다시 재연하고 사라지지 않게, 후배들과 같이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가마골소극장에서 연극을 봤거든요. 그때 봤던 공연들의 아우라를 되살리고, 제 기억 속에 있는 가마골소극장의 분위기를 잃지 않으면서, 그 전통을 이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봉석 : 30년 넘게 가마골소극장이 흔들리지 않고, 거대한 뿌리를 갖고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이처럼 다양한 재능과 개성을 갖춘 인재들이 부딪치며 조화를 이루어온 과정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성향들을 잘 파악하여 대립과 조화를 조율해 온 이윤택 선생님의 연출적 능력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이제 화제를 돌려 부산연극의 발전을 위한 논의를 해봤으면 합니다.

이윤택 : 저는 부산연극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번 밀양 여름공연예술축제의 <젊은 연출가전>에서 <점과 점, 잇는 선...>을 공연한 부산팀(극단 아로새김)이 잘 했어요. 배우들의 화술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무대 만들기 등이 상당히 정성스럽고 연기를 제대로 하려는 것을 봤어요. 해석과 표현이 좋았습니다. 부산연극이 저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산의 연극을 격려하기 위해 내년에는 이윤주 연극상을 주려고 합니다. 이윤주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배우, 연출가, 기획자였지만 그녀는 극단 경영자였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연극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런 부산의 연극인에게 상을 주려고 합

니다. 배우건 연출이건 스텝이건 아무 상관 없어요. 정말 고생한 사람들에게 공연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정봉석 : 이윤주 연극상은 부산 연극인들에게 큰 자극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윤택 선생님을 롤 모델로 존경하는 젊은 연극인들이 많습니다. 선생님의 명성에 힘입어 침체되어 있는 부산의 창작극 분야에도 새로운 부흥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윤택 : 우리가 제1회 극작 워크숍이라 해서 밀양여름 축제 때 세 편의 극작품을 가지고 낭독회를 했습니다. 그 중 하나인 <계화나무 아래에서>를 내년에 공연하려고 합니다. 극작 워크숍이 중요한 것은 먼저 창작품을 뽑은 후 리딩을 하면서 작품 수정 작업을 하고 공연 타당성을 묻은 뒤에 공연을 합니다. 일광에는 극작 워크숍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김문홍 : 창작극을 위해 노력하는 부산의 젊은 극단들을 위한 극작 워크숍이 필요합니다. 가능성이 있는 신예 극작가들을 발굴하여 인큐베이팅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우수한 작품이 있으면 여기 일광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공간을 지원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정봉석 : 그 외에 부산연극계가 보완해야 할 취약한 부문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윤택 : 평론 분야예요. 서울에 비해 부산은 평론가나 연극학자들을 위한 지면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에게 「도요」라는 반연간지가 있습니다. 정 선생님을 비롯한 부산의 평론가들을 위해 그 지면을 제공하겠습니다. 「도요」가 이번 가을까지는 문학 위주로 가는데, 주간을 맡고 있는 최영철 씨에게 다음부터는 종합 예술지로 가겠다고 말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걱정은 편집할 사람이 없습니다. 만일에 부산의 평론가들이 평론과 편집, 교정도 보겠다면, 그리고 원고료도 책으로 받겠다면 언제든지 제공할 것입니다.

정봉석 : 부산의 연극평론계에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이윤택 선생님의 연극세계가 가마골소극장을 중심으로 크게 재편되는 것 같습니다.

이윤택 : 네, 중심 이동을 완전히 해버린 것입니다. 여기 일광에서 제 자리를 찾은 거죠. 지금 현재 <두 개의 달>은 김소희 연출에 김하영이 배우로 출연합니다. 연희단거리패도 여기에 와야 한다는 거죠. 서울의 30스튜디오도 여기를 안 거치면 이제 운영이 안 됩니다. <노숙의 시>도 여기에서 공연을 하고 서울에 갔지요. 그러니까 연희단거리패나 극단 가마골이나 이곳으로 다 모입니다. 극단 가마골은 부산극단이고 연희단거리패는 전국공연단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동성 극단입니다. 합숙은 김해 도요에서 합니다. 사람들이 훈련하고 작품 만드는 곳은 김해입니다. 거기가 집이죠. 새로운 길이 뚫리면 일광과 삼십 분 밖에 안 걸립니다. 앞으로 밀양연극촌은 연극축제의 장으로 활용됩니다. 밀양시에서 밀양연극 축제를 아비농처럼 적극적으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이제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는 연희단거리패의 고장이 아니고 한국 연극의 메카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정봉석 : 바야흐로 일광 중심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가마골소극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한 마디씩 해주십시오.

이윤택 : 저는 이 가마골이 백 년 후에도 존재했으면 좋겠어요. 거창하게 떠들지 말고, 그냥 여기서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한 마디로 품 잡지 말고 그냥 살면서 연극이 곧 일상, 창조적 일상으로 살아간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것은 스웨덴의 스트린드베리 극장입니다. 자그마한 극장인데 들어가니까 스트린드베리 사진이 있고, 열한 시에 <스트린드베리는 누구인가>라는 연극을 하더군요. 고등학생들이 와서 연극을 보는데 "지금 이 자리가 스트린드베리가 앉았던 곳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가장 잘 나가는 연극을 하는데 자리가 없어 보조의자에 앉아 봤어요. 극장 주인이 자기 외할머니가 스트린드베리의 여배우였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역사성입니다. 저는 그런 극장이 되길 바라요. 백 년 후에도 누군가에 의해 이 극장이 계속 돌아갔으면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김문홍 : 부산에서 출발한 가마골소극장이 다시 일광에 터를 잡고 정착을 했으니 부산 연극계와 돈독한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산 연극계 사람들이 일광에 와서 공연도 하고 배우고 싶어도 본인들이 여기에 와서 말하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여기 사람들이 러브콜을 보내서 부산 극단들과 연극 작업도 교류하고, 배우 재훈련 워크숍 등으로 자주 만남으로 해서 소통도 되는, 한 울타리 속에서 움직이는 그런 극단과 소극장이 된다면 두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조인곤 : 김문홍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얼마든지 저희가 마음을 비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는 차근차근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윤택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곳이 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즐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연극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이라도 이 공간을 찾았을 때, 애 여기 잘 왔구나, 편하구나, 새롭구나, 재미있구나 하는 느낌으로 기억되는 장소로 남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비단 연극계뿐만 아니라 관객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봉석 : 영국의 글로브극장 하면 셰익스피어가, 독일의 베를린 앙상블 하면 브레히트가 떠오르듯이 가마골소극장도 이윤택 선생님의 바람처럼 100년, 아니 그 이상 무궁도록 이어져 나가면서 한국연극의 메카가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긴 시간 대담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의 창작공간들

글 | 송수경 · 부산문화재단 문화공간팀장

부산의 창작공간 사업은 상권이 쇠락한 원도심, 폐교, 문화시설이 부족한 서부산 권 등 도시구조 변화로 인해 발생한 유휴공간과 낙후된 지역에 창작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예술가들에게는 안정적인 창작공간 제공과 시민들에게는 질 높은 문화 예술교육 및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민과 예술가들의 자연스러운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지역에 문화커뮤니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산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작공간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공간에 비해 비교적 출범시기가 늦은 편이지만 "원도심 또따또가"의 대한민국 지역문화 브랜드 대상 및 멕시코시티 국제문화상(심사위원단 특별상) 등을 수상함으로써, 문화를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홍티아트센터"는 발틱현대미술관(영국), 뱅크1929(일본) 등 해외 교류사업 활성화 등의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2013년에 감만창의문화촌 운영을 통해 낙후된 지역에 문화를 통한 지역 재생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정식 개관할 F1963(구)고려저장 수영공장은 폐공장을 문화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성격과 규모의 창작공간의 운영을 통한 성과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운영방향의 재설정, 사업의 안정화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엔커시설의 확보, 다양한 장르의 창작자원을 위한 공간 발굴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서부산권 문화예술 창작공간 '홍티아트센터'

2013년 사하구 다대포 신평장림 무지개공단 내 옛 홍티포구에 조성된 창작공간으로 예술가의 레지던시 공간 및 개인 작업실, 대형 작업장, 전시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어 연구·전시·교육·학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설치미술 중심의 창작공간으로 국내외 작가들에게 문호를 적극 개방함으로써 작가들 간의 네트워크 마련을 통한 창작자원은 물론 지역문화의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조성 이후 최근 4년간 입주예술가 및 해외 창작공간 파견예술가 등 총 46명의 예술가가 홍티아트센터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매년 오픈스튜디오 및 입주예술가 릴레이 개인전, 비평프로그램, 세미나 등 다양한 창작지원과 함께 시도문화재단 창작공간 네트워크, 부산울산경남 창작공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레지던시 교류사업은 상호 파견을 원칙으로 하여 일본 후쿠오카 큐슈예문관(2015~), 요코하마 Bank Art1929(2017~), 프랑스 낭트 파라다이스 갤러리(2017), 발틱현대예술센터(2017~2018) 등과의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2017년 현재 홍티아트센터는 개관 당시 설치미술 중심의 단일장르를 목적으로 한 운영의 한계를 넘어서 조형예술을 포함한 한 미디어, 사운드 등 동시대미술의 창작이 가능한 공간으로 장르의 폭을 넓혀 운영 중에 있다. 서부산권에 위치한 홍티아트센터는 현대미술관(2018년 정식개관)과 홍티예술촌(2017년 11월 개관), 신평장림산업단지 내 민간 소규모 창작공간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부산바다미술제 등 국제행사 등과 연계, 국제교류 확대를 통해 서부산권 시각분야 창작기지가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에 집중할 것이다.

원도심 문화예술창작공간 '또따또가'

부산의 행정중심지였던 중구일대는 주요행정기관의 이전과 도시 확장으로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채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빈 점포와 사무실 등 유휴공간이 증가하였다. 이에 2010년부터 역사적인 공간인 중구 동광동 40계단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인들을 모아 사무공간들을 창작공간으로 변모시키고 지역문화의 재발견과 도시재생의 목적을 가지고 시각·문학·공연·커뮤니티 등 다양한 장르 예술가들의 창작활동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해 문화와 예술이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0년 조성 당시 11개 건물에 35실로 시작하여, 사업 3차년(2016~2018)에 해당되는 2017년에는 초기에 비해 2배 이상(23개 건물 77개실)의 창작공간 및 예술인의 입주 성과를 이끌어 내었으며, 입주 예술가들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3년간의 장기입주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원도심 일대에 자립해 선 순환적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창작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또따또가는 관용, 배려, 문화적 다양성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톨레랑스(Tolerance)에 '또'를 가져오고 '따'로 활동하지만 '또'같이 한다는 의미와 거리나 지역을 나타내는 한자 '가(街)'를 합성하여 우리말로 표현한 것



지난 7년간 총 217회 5,088명이 또따또가를 다녀갔으며,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브랜드 대상과 2016년 '멕시코시티 국제문화상(International Award UCLG-Mexico City-Culture21)' 심사위원단 특별상을 수상하여 국내외 적으로 부산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로 원도심 지역 문화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한편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앙동 원도심 지역은 상권 활성화와 복합 재개발 등으로 인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또따또가'라는 문화적 자산을 지키기 위해 2016년도 부산시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건물 매입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창작 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부산시 차원에서의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재단 차원에서 건물을 마련하여 자산화 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

복합문화커뮤니티공간 '감만창의문화촌'

남구 감만동 지역의 대표 유휴공간이었던 폐교를 재건축이 아닌 재생을 통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자는 취지로 지상 5층 규모의 복합문화커뮤니티 공간으로 2013년도 탈바꿈하였다. 감만창의문화촌은 창작공간뿐만 아니라 감만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 입주해 있어 주민들에 대한 접근성과 개방성

을 극대화하였으며, 주민들에게 친숙한 공간으로 인식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하였다.

2013년 ~ 2017년까지 482명의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가 입주하여 활동하였으며, 지난 4년간 지역민과 호흡하는 창작 공간으로 우리동네문화사랑방, 고마내가하까, 오픈스튜디오, 감만아트페스티벌 등 4가지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입주 예술가 지원의 경우 2015년 부산공연예술연습공간 조성을 계기로 공연분야 예술가의 입주확대 및 연습공간 무료 제공 등을 통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거리예술 워크숍 개최 등 창작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감만동은 재개발(뉴스테이 사업)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지역주민 이주로 인한 공동화 현상 등에 대비하여 조성 당시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이라는 기존 운영 목표의 재설정 및 감만창의문화촌이 위치한 남구지역의 공연관련 시설들과 연계하여 공연장르로 특성화된 창작공간을 운영함으로써 공동화 현상에 대비하고자 한다.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공간 'F1963'

F1963은 고려제강의 모태가 되는 공장으로 1963년부터 와이어(Wire)를 생산하던 산업시설로 2008년 가동이 중지되었으며, 이후 2016년 부산비엔날레 전시장으로 활용된 것을

홍티아트센터 (사하구 다대동) '13.10.30 (개관) 지상 2층(부지 8,420㎡, 연면적 1,224㎡) ▶개인 스튜디오 5실, 공동 작업장, 전시실, 작가 숙소(레지던시) 등 운영방향(목표) - 설치미술 중심 창작공간 - 서부산권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기존시설 형태 신규조성	지상 5층(부지 8,420㎡, 연면적 6,276㎡) ▶창작공간 14실, 공연연습공간, 교육실 등 부대시설 운영방향(목표) -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 예술가와 시민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 기존시설 형태 舊 동천 초등학교 감만창의문화촌 (남구 감만동) '13.11.20 (개관)	또따또가 (중구 동광동 일대) '10~ 23개 건물/77실 (임대형 창작공간) 운영방향(목표) - 다양한 장르의 협업을 유도하는 도심형 창작공간 기존시설 형태 원도심빌딩	F1963 공간 내 문화재생공간 2,000㎡ 운영방향(목표) - 전시, 공연, 교육, 휴식 공간이 융합하는 열린 복합문화공간 조성 기존시설 형태 고려제강 舊 수영공장 F1963 (수영구 망미동) 2018년 개관예정
--	--	---	--

계기로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재탄생을 앞두고 있다.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공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공연·전시 및 인문학 프로그램 등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2018년 본격 가동될 F1963은 실험적인 공연 및 전시 기획은 물론, 지역의 창작공간과 유기적인 협력과 연계를 통해 입주 예술가의 발표 및 교류의 장으로 활용될 것이다. 특히, 재단 창작공간에서 교류 중인 영국 발탁현대미술센터, 끼오송 보일 예술특구, 일본 요코하마 벵크아트1929, 큐슈 예문관, 프랑스 GRAME(프랑스 리옹 국립음향창작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 해외교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성화된 창작공간 운영과 네트워크

부산문화재단의 창작공간은 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짧은 활동시기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와 다양한 결실을 거두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상황변화에 따라 각 공간별 한계도 가지고 있다. 창작공간이 위치한 권역 및 장르에 특성화된 창작공간의 조성은 공간의 특색에 적합한 지원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공간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을 만들어 냄으로써 공간별 중복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시각중심의 홍티아트센터를 제외하고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창작공간이 부족하다.

부산의 창작공간은 지역의 민간 창작공간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거점화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재단은 남구 지역의 공연예술 중심의 창작공간 운영과 함께 부산광역시와 협력을 통해 문학,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분야 지원을 위한 신규 창작공간 발굴에 힘써나갈 것이다.

1) 멕시코 멕시코시티와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문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멕시코시티 국제문화상(International Award UCLG-Mexico City-Culture21)'은 지속 가능한 도시의 주요 특성인 '문화'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도시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2013년 제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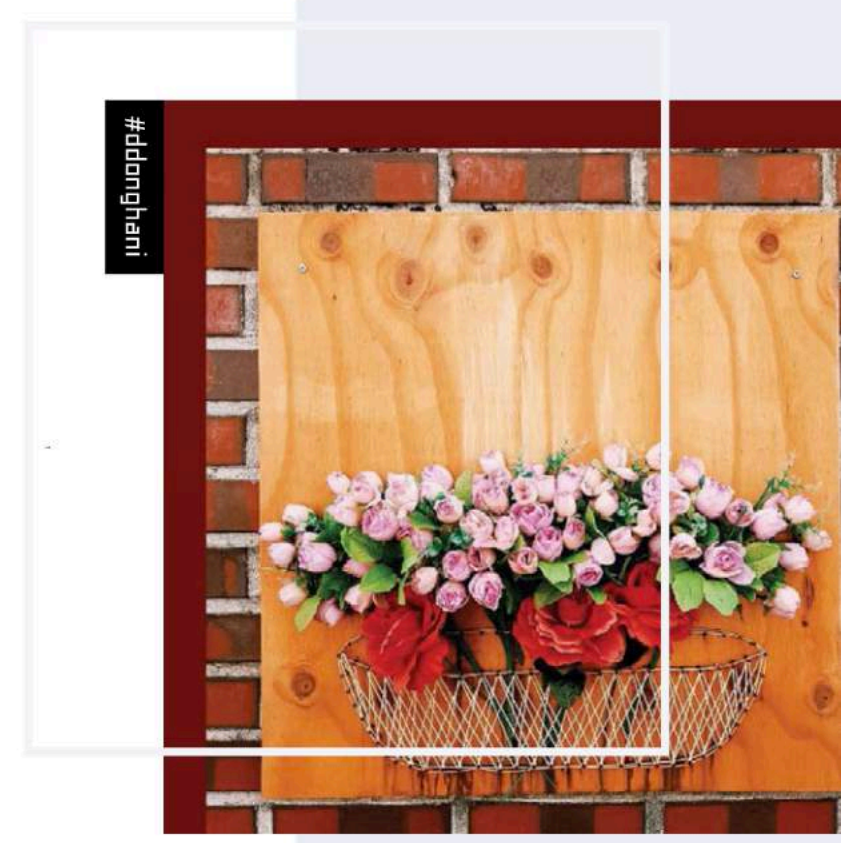
#부산문화재단
#경성대#아는대학생
#신현희와김루트



#kin
K0808

#2

#부산문화재단
#가을 #가을분위기
#버건디 #꽃스타그램
#장미
#flowers #burgundy
#rose #autumn #fall
정확한수평키링크립



#ddonghani

#3

#사상인디스테이션 #부산문화재단
 #마니아의하루 #슈퍼판타지 #상상편집소피플
 #쌍피 근증에 #덕후의방 중 하나로 #프로레슬링덕후 방

오늘부터 얼었어용...

전시라기엔 다른 방들에 비해 정말 방이라...

심심하다 지나가시는 길에 둘러봐주세요



#bj_pan

어린이 미술관

세상에 1초도 실 수 없는 어린이들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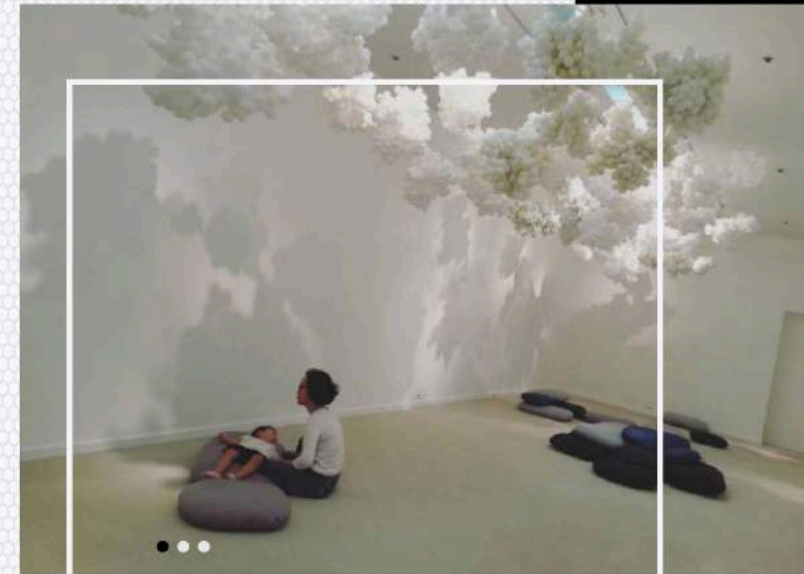
탁구공 2만개 구름 방

사실, 어린이들이 더 좋다

입주작가 공간 둘러보기 중

부산시립미술관 포맷이 넘곤히 자네

#busanchoom



#4

#어린이미술 #어린이미술관 #어린이
 #구름 #공간 #틈 #탁구공구름
 #감만창의문화존 #부산문화재단 #입주작가
 #휴식 #잠 #진짜 #생각
 #예술공간 #예술가 #artist #space
 #부산시립미술관



#eunz_park

#5

#금사락 #예술지구 #육성화학 #현장견학 #안전모
#이것이미술이다 #uisualart
#pigment#fieldtrip

오늘은 육성화학 파낙스 그룹 현장견학입니다.
안료 만드는 공정을 봅니다.
이것이 미술이지 하고 갑니다.



#pearlloverx

#6

#재밌는마켓놀이 #시장놀이 #아더마켓 #부산아트마켓 #
부산문화재단 #부산시장님 #여름방학

주말은 거룩하게 :) 예술로 소통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청구전때 전시했던 몇가지 소품과 취미로 끄적였던
핸드페인팅 도자기 작품이 꽤나 쌓여서 예술시장에 내놓아 보았네요.
단순 구입만이 아닌 질문 많이 주시고 관심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살을 보다

72

건망증과 열쇠—조갑상, 「병찬읍지 편찬약사」, 창비, 2017. 김필남

74

예술을 통해 시대의 변화를 이한나

78

초량1925, 부산의 사라지는 것과 현재를 잇고 미래를 상상하다 창파

82

상주 단체의 현안과 해법의 작은 실마리 김남석

78



78



74



78



74

건망증과 열쇠

—조갑상, 「병찬읍지 편찬약사」, 창비, 2017.

글 | 김필남 · 문학평론가

2007년 〈부산일보〉 신춘문예 평론 부문으로 당선 후 글쓰기를 시작했다. 현재 계간지 〈오늘의문예비평〉과 〈작가와사회〉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며 문학과 영화평을 쓰고 있다. 저서로 「삼켜져야 할 말들」이 있다.

역사는 나이가 들어 현재로 돌아온 아이다. 역사가 상실된 세계나 존재에 대한 이야기이고, 만약 그 이야기가 현재의 청자와 독자들에게 익히 알려진 것이 아니라면, 그 역사는 아이로 탄생한 것이다. 설령, 그 역사를 익히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이야기가 여전히 가시화되기 어려운 맥락에 있는 조건에서 그 역사가 쓰일 때 그 역사는 아이로, 드디어 살아갈 힘을 얻는다. 특히 역사적 경험 가운데 증언되거나 발화되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그 사건이 이야기될 때 삶의 자격을 획득하고 돌봐야 할 아이로 자리 잡게 된다. 조갑상의 장편 소설 「밤의 눈」이 「국민보도연맹」을 다룬 이후, 여전히 이 문제를 소설쓰기의 중핵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이런 점에서 비롯된다.

실제로 「병찬읍지 편찬약사」에 실린 여덟 편의 단편소설은 역사, 기억, 정치, 상실, 망각, 돌봄이라는 거대 문제들을 아주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펼쳐 놓는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이야기들의 무대가 대체로 병원, 장례식장, 공동묘지, 폐부지를 이용한 공원, 경로당, 전시장 그리고 (오래된) 가족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 공간들은 의례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공유지'로 설정되어 있다. 이 공간들은 '광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부대끼고 마음을 주고받는 공동의 장소다. 즉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해 문명이 만든 애도의 절차를 의례라고 할 수 있다면, 이 장소들에선 상실을 잊기 위한 절차보다 오히려 망각에 맞서 기억하기에 애를 쓰는 과정들이 더욱 중요하게 나타나는 곳이다.

이 때문에 소설 속 등장인물들이 주로 '노인'이나 '은퇴자'로 나타난다는 것 역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대목이다. 삶의 끝자락 바로 앞에 있는 존재들을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때, 이들은 삶이 파국에 처했음을 증명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근거'(grund)를 재구성하는 사람들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해후」에서 보듯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묘소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며, 지난 시간들이 갖는 폭력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관계로 '구성'(이것은 '회복'이라는 말로 가름할 수 없는 상황이다)하는 두 노인들의 '대면'은 결코 손쉬운 과정일 수 없다. 이들이 만난다는 것, 피해자 유족과 가해자가 만나는 바로 거기에서 '아이'가 현실로 귀환할 수 있는 장소인 셈이다.

그러므로 조갑상의 소설에서 장례식이나 묘지, 요양원, 경로당 따위는 삶이 파국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다르게 시작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그곳은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삶이 태어나고 자라고 서식하는 장소라는 것이다. 예컨대, 「물구나무 서는 아이」에서 정치 문제로 다투다 갑자기 쓰러져 죽은 "김영호 씨"의 이력이 장례식장에서 이야기되고 "황건수 씨"가 문상을 마치고 나오면서 「국민보도연맹」에 휩쓸린 아버지와 이로부터 비롯된 상처를 가진 '김영호 씨'가 물구나무 서 있는 환영을 보는 것은 저 역사적 사건이 끝이 아니라 다듬고 보듬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해준다.

한편, 일상적 삶의 영역에서 일어난 '사건' 역시 보살피는 '노인들'도 등장한다. 「폐가 똬지 몰라도」에 나오는 "말임 씨"는 "불뚝성"을 내는 남편의 일상을 보살피는데, 이 방식을 다만 자녀들로부터 받는 용돈 따위로 손쉽게 정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모가 그러했듯이 자녀들이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요청한다. 또한 남편이 경로당에 나가서 "바둑"을 다시 둘 수 있는 것은 두 당사자만의 화해에서만 기인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둘러싼 세계 전체가 모두 보살피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보살핌의 '노동'이 대체로 '여성'에게 할당된다는 세간의 평가(실비아 페데리치)가 있지만, 조갑상은 이 노동이 여성에게 강제된다고보다는 '보살핌' 자체가 공동체의 몫으로부터 이탈해버리고 사적으로 해결해버리는 사태를 드러내는 데도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주시시키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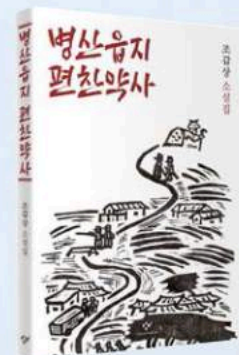
조갑상의 소설이 애도되지 않는 어떤 문제들을 떨쳐버리지 않고 보살피지만, 이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논리들이 동시에 여전히 횡행한다는 것 역시 주시한다. 「병찬읍지 편찬약사」는 아직 돌보지 못한 '죽음'을 다루려는 '지역'의 역사서를 두고 벌어지는 지역의 권력게임과 파워 엘리트들의 잇속 챙기기로 인해 역사적 사건이 역사로 기입되지 못하는 상황을 그린다. 소설에서 이른바 「국민보도연맹」이라는 국가폭력을 통해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과정에서 경찰 고위간부와 행정고위 간부가 이들을 절멸시키는 대신 구출했던 '결단'조차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라고 '읍지'에 넣을 수 없다는 판단에 의해 사실상 삭제시켜 버린다. 「병산」에서 일어난 유래를 찾기 힘든 송고한 경험은 공유기억의 자리를 박탈당한 '기억'으로 처리되고 만다.

물론 국가폭력이 이루어진 역사가 '근대화'의 논리를 통해 굴절되고 왜곡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공유기억으로 형성될 수 없다고 해도 그 역사의 자리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해방공간과 한국전쟁 기간에 대한 병산읍의 역사서술을 맡은 역사학 교수가 애초 서술과 달리 수정을 요구받았을 때, 상실되었으나 여전히 살아 있는 그 역사가 '수정'이나 '교열'을 사실상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문장의 순서를 바꾸거나 단어를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그 논리 자체를 변경하거나 객관적인 서술로 위장한 문장 배후에 그 역사를 은폐하려는 기획에, 즉 그 역사 자체가 근대화나 민족주의의 논리에 강하게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보도연맹」과 같은 국가폭력은 사실상 대체될 수 있는 역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소설이 사건이 종료되고 나서야 시작할 수 있는 이야기라면, 소설은 여행기가 아니라 재탄생하는 이야기일 것이다. 모든 것을 절멸의 게이미옥으로 몰아가는 자본과 후기 근대사회의 다양한 논리에 맞서 '아이'로 출현하는 이야기가 바로 소설인 것이다. 모든 소설들에 대해 이런 방식의 진단을 내

릴 수 없지만, 적어도 조갑상의 소설이 다루는 삶이 대체로 '위기'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면, 조갑상은 바로 그 지점에서 길어 올려야 할 (금세 휘발되고 마는) '아이들의 세계'를 생성하고 돌보는데 사력을 다하는 작가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달리 말해 조갑상의 소설은 중년이나 노년을 다루되, 그것은 죽음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수동적 존재들이 아니라, 나이들을 통해 재탄생하는 존재들이며 삶을 풍부하게 만드는 생생한 삶으로 각인시키는 것이다.

「병산읍지 편찬약사」에 실린 소설들은 이름 없는 누군가의 사건들을 서툴게 봉합하려 하거나 위로하지 않는다. 역사나 정치를 바라보는 편협한 시선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식의 편나누기를 하지 않는다. 그저 담담히 이 세계에 널려 있는 이야기들을 들여다본다. 누구나 한 번쯤 겪고, 보았을 사소한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스쳐지나갈 군중 속의 얼굴(「봄, 그리고 여름까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한다. 그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열쇠라는 것이다. 조갑상의 소설은 더디지만 이를 기억하게 만들면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선부른 후회나 위로, 화해가 목적이 아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지나간 시간과 마주하는 것. 아프겠지만 피하지 않고 마주 서는 것.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조갑상의 소설은 깨닫게 만든다.



예술을 통해 시대의 변화를

글 | 이한나 · <예술공간 H> 디렉터



벌써 10년 전 광고이다. 2007년 '변화를 넘어선 진화'라는 슬로건 아래 선보인 H회사의 S자동차 광고를 기억하는가? 미모의 여인 앞에서 버티고 있는 자동차가 영화 '트랜스포머 (transformer)'의 유명 장면처럼 멋있게 변신하는 것 말이다.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운전자 남성의 변신은 아리따운 여인의 마음을 훔치기에 충분했다. 필자인 나는 그 시절 이 광고를 보며 과학과 기술, 그리고 인간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인간 대 인간이 아니라 인간 대 물질이라는 것이 참 씁쓸하기도 했던 순간이었다. 지금은 더하리라!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물질문명. 그 문명에 지배 받는 우리의 모습은 공존이라는 단어도, 지배라는 단어도, 그 무엇도 말하기 애매한 지금이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기도 힘든 이 시대에 나 자신의 내면이라도 잘 슬러야 하는 실상..... 이 역시도 그러하지 못하다.

혼란과 혼동이 가득한 이 시대. 그것을 이해하고 몸소 느끼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술'이다. 예술이라는 이름하에 소리 없이 외치고 있는 그들의 작품이야말로 말로 드러나는 시대에 대한 이야기와 숨어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모두가 들어있다. 이번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 1999-2017>展은 17여 년간의 이야기를 한데 모았다.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 말할 수 있는 이 시간동안 작가들의 이야기 즉, 작품은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들이 반영한 작품의 개념은 개인 혹은 나아가 사회의 문제를 거울삼아 표면화 시키고 있다. 개인 혹은 주변의 이야기이지만 결국 이는 사회의 문제 안에 있고, 큰 맥락 속에서 이 세대를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 이도 우리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번 전시는 그러한 맥락 속에서 중요한 전시이지 않나 싶다. 13회의 역사를 갖고 있는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展은 2018년 개관 20주년을 앞두고 부산시립미술관 개관 초기부터 의도적으로 배치된 전시프로그램이다. 좀 더 면밀히 재검토하고 결산하는 과정에서 관람객인 필자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20여 년을 보았다.

지금 이 순간

과학의 발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중 하나는 바로 예술가이다. 특히 새로운 매체들이 등장하면서 작품의 변화는 짧은 시간 내에 나름의 이유를 갖고 변화한다. 이번 전시에 큰 스케일을 보여주고 있는 정만영 작가가 그러하다. 조각을 전공하고 목조각에 관심을 크게 두었던 작가가기에 미술관에서 선보여지고 있는 대나무라는 소재는 필연적이다. 작가는 그 위에 한지를 덧 씌워 비디오 프로젝터를 쏘았다.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이즈 위에 작가는 얼굴이라는 이미지를 쏘아 올렸는데, 크기에서나 이미지에서나 임팩트가 있는 작품이다. 한지라는 재료 위에 투영된 평범하지만 거대한 사람의 얼굴은 마치 숨기고 싶은 나를 적나라하게 보는 듯 하고, 때로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발달되고 진화된 과학문명 앞에서 한없이 초라하게 서 있는 나의 모습과 인간의 무력함까지 느끼게 된다. 작가가 무엇을 이야기하던 과학의 발전을 통한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작가에게 수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그의 추억, 우리들의 추억이 되어버린 아날로그 세계는 디지털 세계로 이미 현실화 되었다.

현실화 되고, 그 현실이 대중화 된 지금. 물리적이고도 관념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누적되어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그것이 새로운 도시의 모습을 바꾸는 지금. 이 모든 것은 과학의 발전과 그 발전에 따른 진화가 뿌리를 내린다. 점차 바뀌어가는 도시의 모습 속에 변화되어 가는 우리의 모습도 간과할 수 없다. 철저하게 구획되고 나누어지는 도시는 더욱더 개인적이고도 소외된 삶을 만들어 버리며,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주체가 아니라 남에 의한 객체가 되어버린다.

이번 전시의 2번째 섹션인 <도시, 공간, 분리>에서 정문식 작가의 작품은 과거 우리가 기억하는 도시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공존하는 가운데 과거가 되어버린 도시의 모습과 과거가 될 도시의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 모든 것을 수몰시킨다. 작가가 기억하고 있는 공간(예를 들어, 누리마루, 부산역 등)의 변화는 너무나도 빠르다. 시간의 개념이 무의미할 만큼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변화가 때로는 개인이 쫓아가지 못 할 만큼 앞서가 있다. 현재를 더더욱 기억하고 싶어서일까? 수중에 잠겨진 도시의 모습은 무서우리만큼 고요하다. 그 무서움과 고요함이 화려함 뒤에 가려진 현대인들의 내면의 모습과 닮아있다. 정문식 작가가 특정 장소를 두고 작품을 풀어가지만 이 하나의 장소가 주는 이야기의 저변에는 자본, 물질, 투기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존재해 있어 결국 작가는 우리를 대신해 그 곳을 사회적 장소로 바라본다.

데일리 퍼포먼스

어떠한 감정도 표출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그림 주변을 에워싼다. 그냥 짹짹하는 시곗바늘 소리만 들릴 뿐, 모든 상황은 정지한 듯하다. 작품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는 보는 모든 이들을 얼어버리게 하는 묘한 힘이 있다.

이번 전시의 3번째 섹션인 <일상, 타자, 정체성>에 전시 중인 이진이 작가의 작품은 일상의 어느 한 장면을 포착한 듯 너무나도 평범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며, 의도적인 표현방식으로 각기 다른 장면도 확실히 시켜버린다. 나아가 우리와 마주치지 않는 눈빛은 개인의 평범한 삶을 표현한 것 같지 않다. 그러면서도 작품의 인물들은 자신의 생각에 혹은 자신의 일에 너무 빠져버린 극히 개인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이다. 그 어떤 표현을 작품에 부여하든 관람자의 입장에서 작가의 작품은 자극히 이 시대의 우리를 보는 듯하다. 외부와의 단절을 스스로 마련하고 자신만의 세계를 SNS를 통해 확산시켜 나가고 지켜가는 현대인의 모습이 꼭 이진이 작가의 작품과 닮아있다. 개방적인 듯하나 폐쇄적인 디지털 공간에서 진짜 나의 모습을 숨긴 채 살아간다. 물질문명의 발달이 결국은 우리를 극히 외로운 존재로 남게 만든다.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만들지 않는 현대인 것이다. 매일매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그 사회적 관계를 뒤로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소영 작가 작품 역시 그러하다. 관계와 소통, 그렇지만 부채와 고독으로 이어지는 현대인의 모습을 인형과 같은 모습으로 형상화해서 작품화 하고 있다. 한 땀, 한 땀 이어진 바느질은 그러한 외로움과 상처를 꿰매어 보듬는 행위의 반복인 듯하다. 비어있는 얼굴은 대면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 얼굴 없는 얼굴, 얼굴



이진이 작품



정만영 작품



이라고 말할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얼굴이라고 말하는 것이 꼭 이 시대를 비유하는 것 같아 헛웃음만 나온다. 화려한 천 조각으로 뒤덮인 작가의 작품, 그리고 뻣뻣하게 붙어있는 작가의 개별적인 작품들이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아주 심리적으로 다가온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하루하루를 각박하게 사는 현대인의 모습 속에서, 그 속에서 느끼는 우리들의 내면을 심리적인 공간 안에서 풀어내기는 김소영 작가의 작품은 모두에게 유효하다.

알랭 드 보통의 <불안>이란 책이 생각난다. 우리는 늘 불안과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고 이것은 성과주의를 지향하는 이 시대 때문이라 비판한다. 나의 기준에서 성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나를 성공했다고 인정하면 그것이 내가 성공했다고 착각하는 삶. 이것이 불행의 낡은 원인이라는 것이다. 내가 생각해서 최선의 삶을 살았으면 그것 자체만으로 행복한 삶인데, 우리는 항상 단순한 그것을 놓치고 있다. 결국 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벌어진다.

한 때 노마드라는 단어가 유행이었다. 최근에는 디지털 노마드라고 해서 시간과 장소의 구별도 없고 일과 주거의 구분도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디지털 노마드로 불리운다. 일이든 뭐든 첨단 디지털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그럴수록 자유가 함께 동반되며 나 자신의 삶에 더욱더 치중하게 되는 그러한 삶. 그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공동체의 삶 보다는 개인의 삶에 치중하게 되는 현대의 모습이 결국에는 앞서 이야기한 고독과 상처, 그리고 소통의 부재 등으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에 참여한 많은 젊은 작가들, 세상에 대한 외침이 제일 열정적이고도 격렬할 그 시기,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내면의 성찰을 더욱더 솔직하게 들여다볼 그 시기에 부산시립미술관의 젊은 작가 지원 전시는 중요하다. 그들의 이야기는 가장 솔직한 이 시대의 이야기이며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1999년부터 시작되어 13회의 역사를 가진 이 기획전의 모든 작품들이 한 자리에 모인만큼 이번 전시는 작품들의 내용적인 측면, 형식적인 측면 모두가 알찬 전시이다. 아마 한 자리에서 평면부터 설치까지 아우르는 다이나믹한 작품들, 특히 그들의 고민과 고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작품들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듯 하다. 작가는 부산, 크게는 시대의 이야기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이번 전시에, 그리고 부산시립미술관의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 이 기획전에 큰 박수를 보낸다.

속살을 보다

초량1925, 부산의 사라지는 것과 현재를 잇고 미래를 상상하다

글·사진 | 창파 · 동의동 보안여관 책임큐레이터, 초량1925 운영위원

초량1925, 부산의 사라지는 것과
현재를 잇고 미래를 상상하다

100년 된 골목이 사라졌다. 골목 초입을 비추던 가로등, 철마다 다른 꽃을 선사하던 담장, 낮선 이를 향해 짓던 개, 개조심이라 써 붙여진 대문, 수요일마다 골목을 차지하던 분홍색 어르신 목욕차, 여관 입구부터 골목까지 쏘던 세심한 주인장의 비질, 낮게 들리던 장미 투숙객의 라디오 소리, 점심때면 코를 찌르던 추어탕집의 매콤한 주꾸미 양념 냄새. 초량동 고관로 13번길 골목은 2016년 8월 초량1-3구역 재개발 공사로 사라졌다. 부산의 초량동과 수정동에는 백 살 넘는 골목길과 물길에 혈관처럼 도시를 지난다. 골목은 곧게 뻗은 대로보다는 물살이 굽이치는 모양대로 생겼거나 평지가 미약한 지형 탓에 경사면에 세워진 주거지를 따라 좁게 꺾인다. 이곳에는 고지대로 오르는 계단 길이 참 많다. 100칸 정도야 쉽게 넘기는 계단 길을 오르면 그 끝은 어느 길이라도 산복도로다. 산복도로는 까꼬막에 집터를 잡은 이를 위해 산 중턱을 가로질러 버스가 다니도록 만든 도로이며 다르게는 '망양로(望洋路)'라 불린다. 바다를 바라본다는 뜻처럼 그곳에 서면 꼭 맞는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능선 따라 겹겹이 줄지은 집들과 컨테이너가 쌓인 부두, 통통배부터 모박지의 대형 화물선까지 이를 품은 너른 바다가 있다. 밤이면 이곳은 마치 별빛이 내려앉은 듯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1964년 개통한 산복도로는 동구 범천로에서 서구까지 약 10km 길이로 연결되어 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1972년부터 산복도로 주변에 짓는 건물의 고도를 제한하였다. 그렇게 부산만의 대표적인 전경을 보여주는 전망 포인트를 얻었다. 하지만 요사이 고도제한을 해제하라는 목소리가 드높다. 원도심 구의회 의장단은 고도 규제가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해왔다고 40년 이상 참아 온 불만을 담아 고도제한 해지를 건의했다.¹⁾ 고도 그럴 것이 고도제한은 산복도로에만 해당하고 북항 재개발로 이어질 최대 106층의 빌딩에는 그 영향력이 다다르지 않고 있으니 말이다. 2023년이 되면 동구, 중구를 잇는 초고층 빌딩 벽이 세워진다. 더 놀라운 것은 현재 부산에서만 135개 지역²⁾이 동시다발적으로 재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 숫자는 이 도시 앞에 놓여진 미래이다. 그렇다면 변해가는 이 도시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골목의 기억, 도시의 상상

초량1925³⁾는 100년 된 부산의 도시들을 기록한다. 개화기,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해방, 산업화시대라는 질곡의 근·현대사를 거쳐 만들어진 부산 원도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재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도시건축 전문가, 향토 사료 연구자, 문화예술기획자, 작가들이 뜻을 모아 '초량1925'를 시작하였다. <골목의 기억, 도시의 상상>은 2015년부터 3년째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 부산 동구 초량동을 첫 출발지로 하여 2016년 수정동과 현재는 영주동을 리서치 하고 있다. 초량동은 부산역, 철도, 항만, 지하철이 있는 교통의 요지이자 근대건축물, 전통시장이 있는 생활 주거지역이다. 또한, 차이나타운, 텍사스촌 외 국인 거리 등의 상업지역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도시이다. 반면 수정동은 1607년 두모포 왜관이 설치되었다가 없어지고 고관(古官) 마을로 불리었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는 피란민과 도시 노동자의 주거지였다. 매립지, 배수지, 부산진 역사, 일식 가옥과 같은 지역연구의 가치를 더하는 공간과 더불어 도시 노동자의 애환이 담긴 장소이다. 이 두 지역은 현재 일곱 곳에서 재개발이 진행 중이며 중영로 건너편에 북항 재개발로 인한 변화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1) 출처 : "재산권 침해하는 부산 산복도로 고도제한 해제해야", 연합뉴스, 2016/03/28
2) 출처 : 부산시청 홈페이지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 2017년 7월 31일자
3) 초량1925의 단체명은 등록문화재 349호 <초량동 일식가옥>에서 가져왔다. 초량3동에 있는 이 문화재는 경부선 공사로 건너 온 일본인 다나카가 1925년에 지은 일식가옥으로 초량1925의 활동 거점이다.

상주 단체의 현안과 해법의 작은 실마리

글 | 김남석 · 부경대 교수, 연극평론가



1. 변경된 제도와 새로운 문제

최근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이하 '상주단체사업'으로 약칭)의 보완책으로, 극단이 아닌 극장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선정 단계에서부터 극장 측이 적극적으로 사업 참여를 결정해야 했고, 이는 상주단체사업의 중요한 기획자로서 극장의 위치를 올려놓는 변화를 초래했다. 다시 말하면 이전까지 극장(공연장)은 상주 단체(의 요구)를 수용하여 극장과 연습 공간을 내주고 '그들-상주 단체'의 공연을 뒷바라지 하는 수동적인 참여자에 머물러야 했지만, 변경된 제도 하에서는 어떠한 극단(방향성)을 수용하여 어떠한 공연(목표)을 기획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적극적인 참여자로 변모해야 했다. 나아가서는 이러한 참여자 이상의 기획자, 그러니까 지역의 공연 단체와 지역의 주민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 한 층 성숙한 밑그림을 그리는 조율자의 역할까지 요구받게 되었다.

이러한 역할 변화는 필연적으로 상주 단체의 공연과 긴밀한 연계/협조/공동 작업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두 제작(자) 측은 공연과 운영 혹은 계획과 실행 사이에 공조 체제를 공고히 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한 공연의 두 사업 주체의 충실한 참여를 인정해야 한다. 상주 단체는 상주 공연장 측을 지원금을 수령하는 중간 단계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되며, 거꾸로 상주 공연장 측도 상주 단체를 공연 단위를 달리하는 배속 단체 정도로 간주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이러한 당위(적) 관계를 넘어, 어떠한 공연을 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진전된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관계로 상호 관련성을 재정립(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가령 최근에 불거졌다는 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A 상주 단체는 자신이 속한 ㉠ 상주 공연장의 운영자(대체로 기관장)로부터 특별한 종류의 공연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A 상주 단체는 ㉠ 상주 공연장의 요구가 창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해 이의와 반론을 제기했다(아직은 이 사건이 표면화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B, C, D 등의 상주 단체 등과 공유하며 필요한 경우 공론화하려고 한 바 있다.

이렇게 한 사례를 요약하면, 현재 지금-여기-우리의 상주단체사업이 직면한 몇 가지 문제(점)를 찾을 수 있다. 직접적으로 불거진 문제는 A와 B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공연 요구의 부당성과 관련 내용의 타당성을 따지기 이전에, 사업 참여 단계부터 왜 이러한 논의를 하지 않았는다고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사업 참여 단계(공모 신청)에서부터 두 제작자 측은 관련 협의를 긴밀하게 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 두 단체는 사업 참여 초기에 이미 수행했어야 할 공동 사업에 대한 공동 콘셉트 구축과 상호 양해 단계가 부재했다고 보아야 한다.

바뀐 지원 제도 하에서 두 단체는 동일한 권리를 지닌다. 그 말은 두 단체가 동일한 책임을 진다는 뜻도 된다. 무상 대여나 형식적 관리 같은 과거의 잔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이며, 상호 의견을 상대 측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계약서상에서 창작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원천적인 배제 원칙(명기)보다는, 보다 긴밀한 상호 협조의 가능성을 용인하는 사전 협력 시간을 구축하는 데에 두 측이 합의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만일 문화재단이 그 사이에 역할을 해야 한다면, 중간 조율자로서의 역할에 또한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3. 해결의 실마리와 성과에 대한 재인식

2. 기존의 문제와 원론적 입장

상주 단체가 되면 해야 할 일(수행 업무)이 상당히 많기는 하다. 외부에서 상주단체를 바라보고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 점을 분명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무조건적으로 상주 단체를 옹호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언뜻 보이는 것처럼 상주 단체가 하는 일이 없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전제해야 한다는 의미에 가깝다.

하지만 상주 단체 측도 왜 외부(자)의 시각에서 상주 단체가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남의 일이니 신경을 쓰지 않는다거나 부러움으로 인해 공정성을 잃었다는 대응으로 소홀하게 판단하거나 비판 자체를 무시해서는 곤란하다. 의외로 이러한 외부 비판 중에는 현재 상주 단체가 간과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중요한 맹점이 담겨 있다.

적지 않은 이들은 상주 단체의 공연 일정이 지나치게 짧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필자 역시 동의하고 있다. 공연 횟수는 상주 단체와 외부 비판자들 사이의 입장 차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점이 아닌가 한다. 상주 단체 측은 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공연 일자와 관객 수의 변동 사항을 감안할 때, 공연 일자 1~2일을 증감하는 차이가 미미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어쩌면 보아야 할 관객들(만일 그러한 관객들이 정해져 있다는 논리를 수용한다면)이 공연 날짜 1~2일이라도 충분히 관람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그러니 1~2일을 더 늘린다고 해서 그 숫자가 대폭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이미 정해진 숫자이니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연 일자를 재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 판단은 어쩌면 우리의 공연 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상주단체는 기본적으로 관련 지역민을 향해야 한다는 명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 관객 수가 적다고 공연 일정을 줄이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지역민의 참여(관람)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선정된 상주 공연장은 지역 별로 분포하는 문화회관이나 이에 필적하는 공공 기관을 중심으로 부산 전역에 분포하고 있다. 아주 고르다고만은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러니 각자의 지역민들에게 동참을 유도할 수 있다면 1차적인 차원에서의 '대 지역민 서비스'를 완수했다고 할 수 있겠다. 친근한 말로 한다면, 지역민이 찾는 문화회관과 그 상주 단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우선 목적이 아닐까 싶다. 물론 타 지역 주민들이 찾아오고, 부산 바깥 관광객들이 일부러 방문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금상첨화일 테지만, 이것이 최우선의 목표는 될 수 없을 듯하다.

이러한 입장에서 상주 단체뿐만 아니라 상주 공연장이 해야 할 일은 적지 않다고 해야 한다. 이 문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효율적인 성공 사례가 되기에 우리가 없을 것이다. 성공 여부를 떠나, 지역의 문화회관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이처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참조 사례도 드물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상주단체사업의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쉽게도 현재 상태는 이 문제에 대해 괄목할 만한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계속 논의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전혀 진전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두 가지 사례를 들어 이러한 진전 요소를 짚어보자. 하나는 올해에 확대 시행된 '2017년 공연장 상주단체페스티벌'이다. 이 페스티벌은 공연의 집중력을 높여 축제적 요소를 도입하여 관객들과 주민들에게 참여 혜택을 넓히고 홍보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대안의 일부였다. 과거에도 비슷한 형태의 페스티벌이 자체 혹은 전체 시행된 바 있지만, 2017년에는 더욱 정교하고 확대된 형태로 치러졌다는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페스티벌은 대외적으로도 효과적이지만, 내부적으로도 일정한 실효를 찾을 수 있다. 상주 단체 간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공연장 교환 사용 등으로 인한 유대감 형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한 상주 단체와 공연장 사이의 견해차를 좁히는 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 기간에는 비록 소규모이긴 하지만, 상주단체사업을 바라보는 각계의 대표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상호 의견을 조율하는 기회도 가졌다.

이러한 페스티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싶다. 일단 페스티벌의 집중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각 공연장의 연계 행사의 확대를 들고 싶다. 각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이 비단 공연만 관람하고 퇴장하지 않아도 좋은 프로그램을 곁들일 수 있으면 더욱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사지 않을까 싶다.

상주단체 역시 공연 일 수를 확대하고 신작 발표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보다 의미 있는 참여의 장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현재의 짧은 공연은 상호 시간을 배려한 데에서 연원하고 있지만, 사실 축제의 본질에서는 다소 빗겨 서 있다. 많은 이들이 참여하는 시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람(참여)의 기회도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 작품의 공연 성과를 들고 싶다. 해운대문화회관에서 공연된 <용서받은 시간>이 그것이다. 이 작품은 상주단체인 아트레볼루션이 제작한 공연으로, 관객들의 눈높이를 매우 효과적으로 맞춘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사실 <용서받은 시간>은 몇 가지 식상할 요소들도 동시에 가진 작품이다. 결말이 쉽게 예측되는 플롯, 감상적 요소의 남발로 인한 대중적 자극, 일부 연지에서 보이는 상투성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중성은 적절하게 통제되었고, 이해하기 쉽고 공감하기 편한 연극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이 작품은 예술적 완성도나 실험성보다는 보편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다 많은 대중들이 관람하기에 용이한 작품으로 거듭났다. 이로 인해 관람하는 이들의 눈물과 감성을 끌어내는 효과를 거두었다.

만일 상주 단체들이 레퍼토리 공연을 시행해야 하고, 또 지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작품을 내놓아야 한다면, 이 작품 <용서받은 시간>의 공연 콘셉트와 제작 방향 그리고 대중성의 (눈높이)는 적정하지 않은가 싶다. 단 이러한 단서를 발견했을 때,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이러한 종류의 작품도 있어야 하고, 다른 종류의 작품도 있어야 한다는 단서 말이다. 상주 단체들이 해야 할 일 중에서 대중성을 찾는 일이 그 하나라면, 다른 하나는 완성도 높은 공연을 통해 실험적 창작을 이어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용서받은 시간>은 후자라기보다는 전자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후자의 시간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가혹하지만 이것 역시 어쩔 수 없는 상주 단체의 길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문화나눔의 시작, 조용한수다

글 | 김석희 · 조용한수다 단장, 공연기획자

(수상내역)
2016년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2017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문화나눔'이란 단어를 아시나요?

'문화나눔'이란 지역사회를 위하여 '문화,예술적 재능' 또는 '공간, 악기, 자원봉사 등 문화예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원'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은 2011년 전국 최초로 '문화나눔' 조례가 제정된 곳입니다. 단순히 나누어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보다 즐겁고 매력적인 문화나눔, 공유문화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화나눔'의 최선봉에 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국 유일의 수화 퍼포먼스 뮤지컬 공연단 '조용한수다'입니다.

2017년 상반기 1월 말 기준 등록된 대한민국 전체 장애인의 9.6%가량인 26만 9122명이 청각, 언어장애인으로 부산지역에만 16,355명(부산 시 전체 장애인 수 17만여 명 중 약10%)의 등록된 청각, 언어 장애인이 있습니다. 부산 인구 3,551,507명중 약 5% 가량입니다. 즉, 약 200명 중 1명은 청각, 언어장애인입니다. 바쁜 출근 시간대에 복직이는 지하철, 버스 안 그 중 1명은 청각, 언어장애인이란 뜻입니다. 미등록까지 감안한다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입니다.

눈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장애가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활동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이유로 타 장애에 비해 조금은 관심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청각언어장애인들은 어쩌면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소통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장애를 두고 서로 비교할 수 없지만 더불어 가는 사회에서 타인과의 소통의 어려움, 대화의 벽, 의사전달의 한계가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세상과의 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수화입니다.

수화에 대해서 거침이(비장애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는 흰 장갑을 끼고 열을 맞춰 서서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칼 같이 맞춰서 하는 군무 같은 느낌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청각, 언어장애인이거나 수화를 직접 사용하는 분들이 그 모습을 보면 고개를 가웃거리게 됩니다. 언어로서의 수화가 아니라 무대를 꾸미기 위한 한가지의 수단으로서 수화가 사용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여 '조용한수다'는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모여 언어로서의 수화를 기반으로 기획, 제작, 연출한 수화 퍼포먼스 뮤지컬(이하 '수다')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각, 언어장애인들의 소통의 수단인 수화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리고 비장애인들이 수화에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노래나 연극, 영화 등 다양한 공연 장르를 '수다'공연으로 각색하여 불특정 다수의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공간이나 각종 다양한 무대에서 공연 나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각, 언어장애인들의 실제 에피소드나 살아오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 등 그들의 실제 사연을 취합하여 '수다'공연으로 만들어 영상을 배포하는 등 수화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공연 나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나 다중공간에서의 공연을 하고 나면 항상 많은 사람과 다양한 상황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나왔어요? 어느 기관에서 나왔어요? 장애인들 모임이에요?" 등 수화 교육기관의 부족, 수화의 종교적인 편견, 비장애인들이 수화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 등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소통의 수단인 수화에 관한 현재 실태를 느낄 수 있는 질문을 하시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친절하게 수다 공연에 대한 취지와 문화나눔의 개념과 수화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리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복지 기관 관련 종사자나 수화통역사 분들도 공연장에 많이 찾아오시는데 수화에 대한 본인들의 의견이나 수화에 대한 감수, 수화공연에 대한 바라는 점, 수화공연의 잘못된 점 등 날카롭게 비판을 하시거나 질타를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화에 대한 생각은 수화를 사용하는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개인별로 의견 차이는 있기 때문에 모든 비판과 질타 또한 다양한 조건과 표현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 부산에는 재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장애인을 위한 공연이나 장애인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가 없습니다. 이에 '수다'라는 하나의 새로운 문화장르를 창출하고 청각, 언어장애인들을 위한 새로운 공연 콘텐츠를 개발하여 청각, 언어장애인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생활 선택의 폭을 넓혀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조용한수다'의 앞으로의 큰 계획이자 목표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용한수다'는 '수다'공연뿐만 아니라 부산시민들을 위하여 매주 일요일 부산 관내 3개구(중구, 동래구, 강서구)에서 주말 무료수화교실과 주말 무료점자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의 부재로 인해 배우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시간적, 공간적, 경제적 제약을 없애 장애인들의 언어인 수화와 점자의 보급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봐 줄 수 있는 눈이 있고,

누군가의 말을 들어 줄 수 있는 귀가 있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 언어장애인들을 보면 수군수군거리고 색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선들이 단기간에 바뀌리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더욱 많은 장소에서의 다양하고 볼거리 있는 '수다' 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가감으로써 수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어색함을 허물고 수화와 청각장애인을 바라보는 편견과 틀을 깨어 인식개선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차후에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 언어장애인들을 봤을 땐, 불편해하거나 신기해하거나 특별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냥 '아, 수화를 쓰는 사람이구나.'라고 우리들의 삶 속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특별하지 않은 보통사람으로 바라보고 대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길 조심히 바라봅니다.

'문화나눔'이란 결코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봐 줄 수 있는 눈이 있고, 누군가의 말을 들어 줄 수 있는 귀가 있고, 누군가의 손을 맞잡아 줄 수 있는 손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문화나눔'의 첫걸음이 아닐까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수화를 알고 '수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하여 '조용한수다'는 오늘도 무대에 오릅니다.

그것만으로도 '문화나눔'의 첫걸음이 아닐까요?

누군가의 손을 맞잡아 줄 수 있는 손이 있다면,

덧붙여 지난 5월21일 부산 광복로에선 다양성 메시지를 담은 다양한 단체들의 퍼포먼스와 런웨이쇼 등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만나고, 느끼고, 실천하기 위한 문화다양성주간 개막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조용한수다 역시 뜻 깊은 행사에 참석하여 수화와 점자에 대한 홍보와 체험행사, 버스킹 존에서 펼쳐지는 수화퍼포먼스 뮤지컬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연 후 청각장애인 네분이 조심히 다가오셔서 '청각장애인이세요?'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으로 착각할 정도로 너무 수화를 잘해주셨고 또 이러한 수화를 바탕으로 한 공연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환한 표정으로 손을 꼬옥 잡아주시고 가셨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조용한수다의 공연활동이 틀린 게 아니었다.' 라는 뿌듯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게 해준 그 날의 그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단 한 분의 청각장애인이라도 저희의 공연을 보고 같이 공감할 수 있다면 그 어떠한 박수, 응원보다도 큰 원동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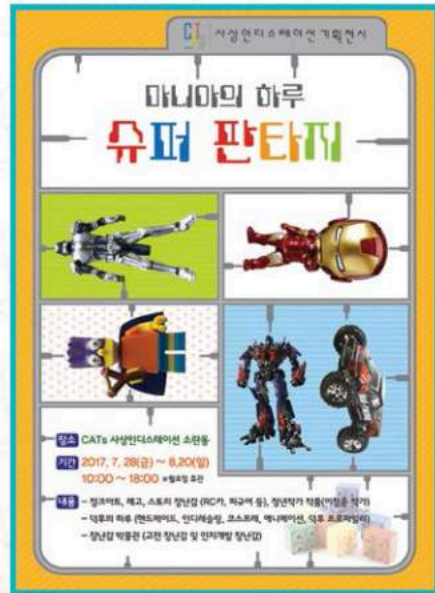
* 2016년 2월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수화'가 아닌 '수어'나 '한국수어'로 표기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수화'로 작성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01

재단은 지금

사상인디스테이션, 서브컬처 전시회 <슈퍼 판타지> 개최



지난 7월 28일부터 CATs 사상인디스테이션에서 서브컬처 중심의 마니아 문화를 다룬 기획전시 <슈퍼 판타지>가 개최되었다.

정크 아트, 레고 디오라마, 스토리 장난감(RC카, 피규어) 등 다양한 서브컬처 콘텐츠를 모아 전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전시회로 진행된 이 행사는 특히 여러 분야의 콘텐츠 마니아들이 직접 참여하여 각자의 개성을 살린 독특한 전시품들로 꾸며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하였다.

전시는 정크아트 로봇과 레고 디오라마, RC카와 스테츄 등 스토리 장난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년작가의 설치미술도 함께 감상할 수 있게 구성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다. <덕후의 하루>라는 컨셉으로 구성된 방에서는 각 장르 별 마니아가 꾸민 애니메이션, 인디레슬링 등 여러 주제의 콘텐츠들도 즐겨볼 수 있었다. 고전 장난감 전시로 구성된 <장난감 박물관>은 옛날 장난감과, 어린이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움직임과 소리는 장난감 등을 전시해 옛 추억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덕후' 성향 리서치존 등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구역도 마련하여 관람객들이 더욱 몰입하게 만들었다.

전시장에서는 관람객을 위해 플라로이드 카메라를 활용한 사진 촬영 및 인화 이벤트도 같이 진행하였고, 또한 펠러비즈 및 비즈아트 등 전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하여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02

재단은 지금

책을 통해 만나요.. 2017 가을독서문화축제



가을을 알리는 독서문화축제가 지난 9월 2일(토)부터 3일(일)까지 양일간 서면 놀이마루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축제는 독서인문학 관련 민간 활동 전문가들이 축제의 실행위원으로 참가, 책을 매개로한 시민 대상의 다각적인 문화축제를 기획했다는 점이 축제 전부터 주목을 받았었다. 축제는 크게 <생명, 탈핵을 순하다>라는 주제코너, <冊架圖> 도서전, <책과 마주하다> 체험과 전시, <책과 이야기하다> 심포지엄 및 작가와의 만남 등으로 구성되었고, 지역 내 다양한 서점과 출판사의 도서들을 전시하고 다양한 강연과 체험, 공연, 작가와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 주제코너 <생명, 탈핵을 순하다>에서는 특별강연, 다큐멘터리상영, 음악 공연, 사진 전시,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도서전(冊架圖)은 부산 및 타 지역(수도권) 출판사들이 참여하여 축제를 찾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책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체험과 전시 프로그램인 <책과 마주하다>에서는 일반인들에게 시연을 접수받아 책을 선물하는 독서 권장 이벤트 '당신에게 책을 선물합니다'를 비롯하여 동시·동화마당, 책과 함께 놀아보자, 어린이책으로 꿈꾸기 등은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 <책과 이야기하다>에서는 독서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작가와의 만남이 진행되었다. 부산 출신의 시인이자 한국 시문학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천양희 시인과 함께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부산아동문학인협회 36명의 작가들이 축제 현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마음 따뜻해지는 주옥의 글귀들을 직접 들려주고 글쓰기, 책읽기의 고민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어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03

재단은 지금

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가>등급 획득



- 문화진흥분야 5개 기관 중 1위
- 17개 기관 중 전년대비 평가 득점 9.89점 상승으로 가장 높은 상승

부산문화재단이 2017년(2016년도 실적)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가> 등급을 획득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는 경영효율화, 고객만족성과, 경영효율성과의 지표를 점수화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재단은 창작 보급 및 활동, 문화예술교육진흥, 창작공간 관리 및 운영 영역에서 우수한 실적을 나타냈으며 지역 향토기업과 함께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 인적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추진 활동 등은 수범사례로 꼽혔다.

부산문화재단은 전년도 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았던 경험을 와신상담(臥薪嘗膽)의 해로 삼아 17개 평가기관 중 전년대비 평가득점 9.89점 상승으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으며 문화진흥분야 5개 기관 중 가장 높은 득점을 받아 국제교류재단과 함께 <가>등급을 받았다.

04

재단은 지금

새로운 공간. F1963 OPEN SQUARE



복합문화공간 F1963에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시민들과 공연예술 향유

지난 9월 1일부터 부산의 새로운 문화공간 F1963(수영구 망미동)에서 부산 예술가들의 오픈콜 공연프로그램 OPEN SQUARE를 개최하였다.

F1963 OPEN SQUARE는 F1963과 부산지역 전문공연예술가가 결합되어 실험적이고 예술적인 공연프로그램을 시민에게 선보이고자 기획된 파일럿 프로그램이다.

F1963은 와이어 생산공장이었던 구.고려제강 수영공장을 문화로 재생시키고자 조성중인 복합문화공간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17 폐산업시설 문화 재생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전국 최초로 민관(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고려제강)이 협업하여 함께 문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있다.

폐산업시설을 활용한 새로운 공간에서 진행되는 본 프로그램은 음악, 무용,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F1963 중정에서 무료로 진행하며, 9월 1일부터 10월 28일까지 총 11회 진행하였다.



05

재단은 지금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문화예술교육 페스티벌<꿈다락> 개최



지난 10월 14일(토), 15일(일) 이틀간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놀이마루에서 2017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문화예술교육 페스티벌 <꿈다락>을 개최하였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라 매주 토요일 아동, 청소년 및 가족들이 문화예술 소양을 함양하고 또래 및 가족 간 소통할 수 있는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와 함께하는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부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축제는 부산 지역 문화예술교육단체의 활동성과를 부산시민과 공유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 문화예술교육 전시 및 체험행사, 공연행사를 운영하였다.

특히 올해는 '오만가지 문화예술이 숨어있는 꿈의 아지트 문화예술 문방구'라는 부제로 문화예술교육단체의 특성에 따라 지역, 소통, 놀이 세 가지 zone을 구성하여 주제별 특성을 살린 부스 운영을 통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인형 만들기 및 인형극 체험, 마을지도 제작 및 여행 놀이, 악기 체험, 특수 분장 시연 및 증강현실 시연, 이벤트 참여, 오케스트라, 스트리트 댄스, 연극, 국악 등의 공연이 진행되었다.

행사 2일째 우천으로 인해 실내로 공간을 옮겨 진행되었지만 많은 시민들의 호응과 참여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06

재단은 지금

교육행정과 문화예술 만남



상반기에 이어 『2017년 문화예술행정 아카데미』를 감만창의문화촌과 기장군 일대에서 총 2회 운영하였다.

이번 연수는 지난 6월 체결했던 교원 직무연수 및 프로그램 연구 개발을 위한 부산문화재단과 부산교육연수원 상호 협약이후 처음 진행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교장선생님 29명과 교육청 공무원 30명이 참여하였다.

1회차는 부산 초·중등 교장을 대상으로 '부산의 문화예술, 교육으로 담다'를 10월 19일 ~ 20일 양일간 진행하였다. 재단 유종목 대표이사의 <부산문화의 뿌리> 강의를 시작으로 <무형문화재로 알아본 어린이 문화예술교육의 사례>, <기장의 향토화와 역사>, <내 안의 숨은 감성-도자기 체험> 등 지역문화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다양한 강의와 체험, 탐방으로 이루어졌다.

2회차는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산 속 숨은 문화예술 콘텐츠를 찾다'를 10월 26일 ~ 27 양일간 진행하였다. <폐교, 문화로 열린다>, <월츠 관계를 맺다>, <지붕없는 갤러리, 대롱마을> 등의 내용을 통해 지역 문화의 가치와 그 특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교육행정과 문화예술의 새로운 만남의 장으로 진행되었다.



재단 행사 소식



행사명	일시	장소	행사내용
토요역사교실 - 기록한 아침	9/9~11/25 매주 토요일	조선통신사 역사관	초등학생 대상 역사교실 (역사관 관람 및 해설, 구연동화 등)
홍티예품(하반기) [자화상 5060]	10/13~11/10 매주 금요일	홍티아트센터	5060세대를 위한 심리 치유 예술 프로그램
저작권 및 법률상담 컨설팅데이	10/24 11/24	감만창의문화촌 등	예술창작과 관련된 저작권 및 법률 컨설팅
예술인 휴(休) - 안심프로그램 「예술인 힐링캠프」	10/26 10/30 11/6	감만창의문화촌	예술인 자아발견 수지애니어그램 프로그램 운영
수영구 생활문화예술제	11/1~4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수영구 생활문화예술제
청년축제 20show	11/3~5	비온드거리지 CAMPUS D	청년 문화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 실행
약기야 놀자	11/4	부산시민공원	부산시민대합주 공연 및 공유악기
2017년도 세계유산 시민아카데미 피란수도 버스투어	11/4~12/10	원도심 일대 등재 후보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 대상지를 답사하며 시민 공감대 형성과 홍보
북구 생활문화예술제	11/5	북구문화빙상센터	북구 생활문화동아리 예술제
청년문화 네트워크포럼 9회차	11/8	사상인디스테이션	청년문화포럼
청년두드림 - 게릴라강연	11/11 11/18 11/25	청년두드림	문화기획자 게릴라강연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브랜드콘텐츠제작 - Turn Toward Busan	11/9~11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정신해무용단 부산지역 브랜드콘텐츠 공연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열번째 정기공연 가로지르기'	11/9~11	부산민주공원	무용단 레드스텝
부산원로예술인창작지원 2017 님의 예술혼, 상생으로 통하다 출판기념회	11/10	미정	부산원로예술인창작지원사업 문학분야 출판기념회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영화에 빠지다'	11/10	해운대문화회관	극단 아트레볼루션
청년두드림 - 청춘이데이	11/10 11/17 11/24	청년두드림	청년예술가 전시, 옥상 콘서트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영화속의 바다 민요 이야기'	11/11	국립해양박물관	경상도민요보존회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어린이 영어합창단 연주회'	11/11	동래문화회관	드림문화예술

11·12월



행사명	일시	장소	행사내용
조선통신사 이야기	11/14 11/16 11/21 11/23	조선통신사 역사관	다양한 내용과 관점으로 구성한 조선통신사 주제의 강좌 (14:00~16:00)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제45회 정기공연'	11/16	금정문화회관	부산네오필하모니오케스트라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길라콘서트 페스티벌'	11/17	해운대문화회관	극단 아트레볼루션
문화다양성 네트워크 페스티벌	11/17~26	부산영화체험박물관 등 부산지역	어둠속의 카페, 젠더 파티, 문화다양성 교육, 포럼 등
영도구 생활문화예술제	11/22~26	영도문화예술회관	영도구 생활문화동아리 예술제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행사	11/25	영화의전당(예정), 시내 호텔, 부산시청 등	조선통신사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기념 축하 행사 (공연, 심포지엄, 전시 등)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창작 오페라'	11/25	동래문화회관	드림문화예술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창작초연, 작품미장'	11/23~25	부산예술회관	극단 누리예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챔버나이트'	11/23	울속도문화회관	인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홍티아트센터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교류전	11/24~12/25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	홍티아트센터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교류전
인디페스티벌 인디워홀	11/25	사상인디스테이션	인디페스티벌
무용 생활문화예술제	11/27~28	부산시민회관	무용 생활문화동아리 예술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리탈라 흥신소'	11/28~30	부산민주공원 중극장	극단 더블스테이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송년음악회'	12/1	영도문화예술회관	미래필하모니오케스트라
문학 생활문화예술제	12/1	국제신문 대강당	문학 생활문화동아리 예술제
청년두드림 - 게릴라강연	12/9 12/16	청년두드림	문화기획자 게릴라강연
입주예술가 릴레이개인전(김자이)	12/15~1/5	홍티아트센터	홍티아트센터 5기 입주예술가 릴레이 개인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송년음악회'	12/21	금정문화회관	부산네오필하모니오케스트라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브랜드콘텐츠제작 - 정과정	12/27~28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극단 바다와문화를사랑하는사람들 부산지역 브랜드콘텐츠 공연
청년연출가작품제작지원	12/28~29	경성대 콘서트홀	청년연출가작품제작지원 선정작 - 김수현 연출가 <Red Door>

* 행사참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문화재단(대표전화 051-744-770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문화의 모~든 소식 #부산문화재단

팔로우

Yellow ID

TALK

안녕하세요

f

부산문화재단

예술로 달리는
365일
문화의 온기로
36.5°C

f i TALK 에서 부산문화재단을 검색해보세요

혜택1
언제 어디서든 부산문화재단의 다양한 소식을 받을 수 있다.

혜택2
부산문화재단과 실시간으로 1:1상담 가능하다.

문의: 051-745-7224



「공감 그리고」는 무가지로 발간되며, 배포를 희망하시는 문화공간이나 단체는 부산문화재단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51-745-7223)

감만창의문화촌 / 조선통신사역사관 / CATs 사상인 디스테인션 / 흥티아트센터 / F1963 / 민락인디트 레이닝센터 / 도시철도 북 하우스(시청역, 중앙역, 연산역, 온천장역, 수정역) / 부산관광안내소(노포동, 부산역, 김해공항) / 부산시립시민도서관 / 부산시 중앙도서관 / 부산국립국악원 / 부산시립미술관 / 부산시민회관 / 부산문화회관 / 을숙도문화회관 / 금정문화회관 / 동래문화회관 / 영도문화예술회관 / 해운대문화회관 /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 또따또가 운영지원센터 / 상상공간 아르케 / 모퉁이 극장 / 부산지역 작은도서관 / 추리문학관 / 문화매개공간 샘 / 영광도서 / 금정공연지원센터 등

부산문화재단 후원회원모집

여러분을 부산의 문화예술인으로 모십니다.

부산의 문화예술을 풍성하게 만들고 싶은 분!
산소처럼 부산문화재단과 늘 함께 하고 싶은 분!
문화예술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분!
화려함보다는 꾸준한 관심으로 재단과 기업체 그리고 시민들이 모두 하나 되어 단단한 후원을 쌓아가는 당찬이야말로 부산의 문화예술인입니다.

1. 후원혜택
2. 후원회원
3. 후원가입

-세제 혜택(연말정산 등)
-재단 기념품 증정
-재단 발간도서 발송(공감 그리고, 연차보고서 등)
-재단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 행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시민평가단 우선순위 배정

-일반회원 : 매월 1만원 정액 납부
-연간회원 : 매년 20만~50만 정액 납부
-평생회원 : 500만원 이상 일시불 납부
-단체회원 : 단체, 기관, 법인, 기업이 1,000만원 이상을 일시불로 납부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www.bscf.or.kr → 알림마당 → 후원회원 모집 → 후원회원 가입 신청하러 가기
-문의전화 : 부산문화재단 경영지원팀(051-745-7216)